

6일 Market Index			
코스피	5450.33	코스닥	1047.37
(+73.03)		(-16.38)	
금리	3.432	환율	1503.95
(-0.016)		(-1.25)	



中 실적 시들... 美·유럽 등 '글로벌 무대' 확장

K뷰티 지도 바뀐다

① 수출국 中→美 전략 다변화

한때 중국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K뷰티 산업이 북미·유럽 등 서구권으로 진출하는 등 새로운 영토를 발굴하고 있다. 시장은 넓어지고 기업들의 전략은 다양해지고 있다. 생존을 위한 차별화 시도, 그리고 유통을 넘어 글로벌 새질서를 설계하려는 플랫폼 전략까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나아가 새 트렌드를 주도하려는 K뷰티 기업들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짚어 본다. (편집자주)

국내 뷰티 기업들이 새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에 주력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6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화권에서도 실적 반등을 확인했다. 2025년 기준, 미주 매출과 중화권 매출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0%, 0.5% 증가했다. 다만 전체 매출에서 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4%에서 2025년 15%로 커졌고 중화권 비중은 13%에서 12%로 줄었다.

아모레퍼시픽 서구·중화권 실적 반등 주주 가치 제고 위한 미래비전 구체화 애경산업·LG생활건강 해외 부진 수출국 다변화, 중국 차별화 전략

아모레퍼시픽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인도 등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해 성장 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에스트라, 헤라 등 '뉴 뷰티' 브랜드 입지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다. 에스트라는 더마 화장품 브랜드로, 지난해 미국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부터 유럽에서도 본격 선보여지고 있다.

메이크업 브랜드인 헤라는 전 세계 팬덤을 보유한 K팝 아이돌인 필릭스를 브랜드 모델로 선정하는 등 국내외 소비자와 접점을 마련했다. 오는 10일에는 브랜드 대표 제품인 '센슈얼 누드 글로스'의 신규 색상 2종도 글로벌 동시 출시한다.

해외 사업에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은 수출국 다변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 시장 공략을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3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공기관 차량 2부제(출퇴근제) 시행을 이틀 앞둔 6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구에 2부제 시행 관련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스타필드·AI 인프라 구축 '신세계 2막' 속도

정용진 회장, 경험·인프라 기반 확보 "고객 경험의 확장이 신세계의 확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의 투자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비 중심 유통기업에서 벗어나 '경험'과 '인프라'로 축을 옮기며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 회장은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초대형 복합시설 '스타필드 청라' 건설 현장을 직접 찾으며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스타필드 청라는 2만3000석 규모 멀티스타디움과 호텔, 쇼



핑몰, 인피니티폴 등을 결합한 복합레저테 인먼트 시설로, 완공 시 국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단순 쇼핑몰을 넘어 체험형 경험 공간으로의 진화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정 회장은 "고객 경험의 확장이 곧 신세계의 확장"이라며 완성도와 안전을 강조했다. 완공 이후 SSG 랜더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할 예정인 만큼 스포츠·문화·쇼핑·레저가 결합된 새로운 상권 모

델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테크기업 '리플렉션AI'와 손잡고 250M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 것으로, 최소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단순 설비를 넘어 AI 인프라·소프트웨어·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이 목표다. 엔비디아 GPU가 탑재될 예정이며, 양사는 연내 합작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SK하이닉스, 4년내 HBM5 출시 전망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 속도

SK하이닉스가 2029년 8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5)를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차세대 HBM 주도권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에 속도를 내며 기술 우위 확보에 나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BE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즈(BESI)의 통합 하이브리드 본딩 솔루션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기술은 대역폭과 지연시간, 전력 효율, 속도 등 인공지능(AI) 메모리에서 요구되는 핵심 성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존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 칩 사이를 구리(Cu)와 구리(Cu)로 직접 접합하는 기술이다. 칩 간 간격을 줄여 두께를 낮추고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력 효율, 방열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어 차세대 HBM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현재 HBM 제품은 국제반도체표준협회기구(JEDEC) 기준 완화에 따라 최대

16단까지는 기존 TCB 공정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더 높은 대역폭과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기업들은 HBM4(6세대) 이후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차세대 HBM 공정 전환을 위한 검증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4~5월부터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장비업체들과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社告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①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 및 평가)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② 모집인원: 00명
③ 응시자격
④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 자 응시가능)
⑤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⑥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⑦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메트로빌딩)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① 일시: 2026년 5월 13일(수) 10시 ~ 16시 40분
② 장소: 추후 통지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를 작성하여 제출
■ 1차 실무면접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메트로 한줄뉴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역세권 용적률 1.4배 확대
▲ 정청래 "공천 결과 가처분 신청하면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겠다" /사진 뉴시스

▲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 줄인다... "빵 안 굽는 베이커리카페 배제"
▲ 황중우 해수부 장관 "선사·정유사 '홍해 우회' 지원

▲ 박주민 "정원오 측, 여론조사 결과 가공"...정원오 "그럴 이유 없어"
▲ 국정원 "김정은 위상 많은 변화...정상국가 의도"

李 “중동발 위기,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민생경제 지원·에너지 전환 강조
국정 혼드는 가짜뉴스 강력 대응
토허제 신청분 양도세 유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이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시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에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 등을 언급하며 “신고 들어오는 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적발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오일 쇼크를 겪어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며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

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는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되어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5월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나,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는 소위 ‘깡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판단된다”며 “관계 부처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영양

2026

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

기간 | 2026년 5월 7일(목) - 10일(일)

장소 | 영양읍내 및 일월산 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VFTF 영양축제 관공재단

당정 “주유소 사후 정산제 폐지”

정산주기 1주 이내 단축 협의
주유소 ‘전속 구매’ 제도 개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유소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특위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정산 주기는 (기존) 1개월인데,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후정산제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연동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가격을 모른 채 제품을 구입한 후에야 최종 가격이 정해지며, 석유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만 사도록 하는 ‘전속 구매’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정유사와 주유소는 1년 단위로 전속 구매 계약을 체결·갱신하는데, 주유소의 선택권과 협상력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안 의원은 “(한 쪽 것을 100% 구매하는) 전량 물량을 60%까지 낮추는 방안

으로 주유소와 정유소 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4월 둘째 주까지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안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대체 루트인 흥해 항로에 국적 선사 5척을 투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스왑(맞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나프타(납사)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문제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50개 주요 업종에 대한 공급망을 일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납사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수출제한 품목을 합성수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피해 기업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실제 당정은 이날 나프타 대체 물량 확보를 유인하기 위해 차액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수출 피해 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한 긴급 바우처 255억원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무역보험 관련 예산 규모를 기존보다 3조원 이상 더 확대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박경수 인턴기자



metro

社告

-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D램값 폭등에 '증설·수주전' 격화

2분기 계약가도 오름세 이어질 듯 AI 수요 확산에 범용·HBM 강제 삼성, 평택 P4 첨단 D램 배치 유력 SK, 빅테크 장기공급 협상 속도전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D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능력 확대와 장기 공급 계약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빅테크 고객사와의 협력 강화와 함께 차세대 공정 투자가 이어지며 메모리 시장 주도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6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D램의 계약가격은 전분기 대비 58~63%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고객사와의 협상을 통해 2분기에 공급하는 D램 가격을 1분기 대비 평균 약 30%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에는 서버와 PC,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범용 D램을 비롯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도 포함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앞서 삼성전자는 1분기 D램 평균 가격을 전분기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AI 가속기 공급이 급증했고, 이에 탑재되는 HBM 수요도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이후 가격 상승 폭은 다소 완만해졌으나 시장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단기간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삼성전자 제4 평택캠퍼스(P4)항 설비 역시 최첨단 D램 공정에 집중될 전망이다. 해당 라인에 10나노급 6세대(1c) D램 양산을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P4 팹은 낸드와 파운드리를 모두 양산하는 종합 팹으

로 설계됐으나 시황 등을 고려해 대부분 생산능력을 D램에 할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샘플 납품을 목표로 하는 HBM4E 코어 다이에 적용될 1c D램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해당 공정에 활용될 극자외선(EUV) 장비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3배가량 확대했다. HBM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HBM4E를 탑재한 차세대 AI가속기 '베라 루빈 울트라'를 내년 하반기 출시할 계획인 만큼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DDR5 장기공급 계약을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은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며 수십조 원 규모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구글과도 장기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인 HBM을 비롯해 서버에 들어

가는 범용 D램 공급이 핵심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MS와 구글은 삼성전자와도 메모리 장기공급 계약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증권사들은 D램 가격 상승과 HBM 수요 확대를 반영해 실적 추정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50조원으로 내다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SK하이닉스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을 31조5627억원으로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 들어 D램 가격 상승 폭은 1분기 대비 다소 둔화됐지만, AI 서버 투자 확대와 고용량 서버용 DDR5 등 고부가 제품군의 수요 증가,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이 맞물리며 가격 인상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집값 '하락거래' 비중 확대 강남중심 상승세 꺾였다

직방,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분석 3월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44.5% 보유세·세제 변수에 매물 증가 영향

기존 집값보다 내린 가격으로 거래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강도 대출 규제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아닌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4.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p) 하락했다. 보합거래 13.3%, 하락거래 42.1%로 상승 거래 흐름이 다소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역시 2월 3만 8602건에서 3월 3만 325건으로 줄어 시장 전반의 거래 열기가 한풀 꺾였다. 수도권의 상승거래 비중은 44%로 전월 대비 6.5%p 낮아져 하락폭이 더 컸다. 하락거래 비중은 40.4%로 5.7%p 높아졌다.

서울의 상승거래 비중은 3월 51.4%다. 7.6%p 하락하며 지난해 8월 48.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월간 낙폭으로는 지난 2023년 11월(-7.9%p) 이후 가장 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2월 61.2%에서 3월 50.0%로 11.2%p나 하락했다. 작년 8월 48.1% 이후 가장 낮다. 하락거래 비중은 2월 25.2%에서 3월 35.5%로 10.3%p 상승했다. 구별로는 강남구의 상승거래 비중이 40.5%로 전월 대비 18.2%p나 하락했고, 서초구도 53.1%로 13.2%p 낮아졌다.

직방 관계자는 "5월 보유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증가 유예 종료로 앞둔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며 "특히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일부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만상미 기자 smahn1@



metro

애경산업·LG생진, 美 공략·中 유통 강화

>> 1면 '中 실적 시들...'서 계속

애경산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스킨케어 브랜드 시그니를 공개하고 올해 들어 미국 대형 유통 매장에 헤어 브랜드 케라시스, 바디 브랜드 샤워메이트, 립센트 등을 입점시켰다.

이와 함께 전통 강세 지역인 중국에서는 유통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국 이커머스 전문 기업 '넛탑스'

와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양사는 지난 8년간 글로벌 역지구 시장에서 협업한 바 있고 이번에는 넛탑스가 에이지투웨니스(AGE20'S) 중국 일반부역을 독점 총괄하게 됐다.

LG생활건강은 K웰니스와 고급 K뷰티라는 두 트랙 전략을 펼친다.

우선 두피관리 브랜드 '닥터그루트'를 핵심으로 네오 뷰티 부문을 신사업으로 육성하며 북미 시장에서 보폭을 넓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영양군 공고 제2026-322호

「영양군 시외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영양군 시외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7일



영양군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영양군 시외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
- 나. 사업위치 : 경북 영양군 서부리 일원
- 다. 사업량 : 영양군 시외버스터미널 및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 라. 사업기간 : 2027. 1.(예정) ~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 마. 시행주체 : 영양군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2. 보상계획 및 열람

- 가. 보상대상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고
- 나. 토지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 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4. 7. ~ 2026. 4. 22. (15일간)
- 라. 열람장소 : 영양군청 농촌경제과 교통정책팀(☎054-680-6741), 영양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입찰]에서 확인가능
- 마.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본인(신분증 지참)이 열람장소에서 열람 후 열람대장에 성명 등을 기재
- 바.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
 - * 붙임1) 이의신청서 참고

3.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개별별 보상대상 토지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통지
- 나. 보상시기 : 보상 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후, 2026년 6~7월 중 보상 협의 예정
 - 보)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다.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 라.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나 소유자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
- 마.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추천하여야 합니다.
 - * 붙임2)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참고

4. 기타

- 가. 상기의 보상계획 및 사업 시행기간 등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확인)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 나.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한 주소나 주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편입토지 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문의사항은 영양군청 농촌경제과 교통정책팀(☎054-680-6741)으로 문의바랍니다.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 미래 신사업 밸류체인 구축 속도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맞손' 기업 입지·정부 비전 좌표 일치 로봇, 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현대자동차그룹이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전북 새만금지역에 로봇·AI-에너지 중심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새만금 프로젝트' 관련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월 정부·전라북도와 맺은 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날 장재훈 부회장은 "새만금은 1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트라이포트 교통망, 그리고 70만 명이 유입되는 신도시 인프라 계획을 갖추고 있다"며 "기업이 원하는 입지 조건과 정부의 지역 성장 비전이 같은 좌표 위에 놓여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계획 발표 38일 만에 4곳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하게 되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속도이며, 이 사업에 대한 민관 공동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은 금융구조 자문과 지원을, 기업은행은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금융 지원을, 수출입은행은 해외 진출과 수출입 금융을, 신용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MOU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 위원장, 장 부회장,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뉴시스

증기금은 보증 지원을 맡아 사업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지역 혁신성장거점 구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정보를 협약 기관들과 공유한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지역 112만 4000㎡(약 34만 평) 부지에 약 9조원을 투자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AI 데이터센터, 1GW급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미래 신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로봇, AI 데이터센터, 수소 에너지 및 AI 수소 시티 등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산학 협력 강화 등으로 유입되는 우수 인재는 서남해안권

전반의 중장기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첨단 로봇 기술 선도 및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 수소 에너지 생태계의 주도적 구축 등 로봇, AI, 수소 에너지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 2월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구축 협약 체결 이후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프로젝트 관련 세부 사업 검토 및 투자 구조 설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며 단계별 추진 방안과 투자 일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위 소액공모 기준 30억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공모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공시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한 공시서류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제도로, 기준이 상향되면 더 많은 기업이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이후 유지돼 왔지만, 공모시장 규모 확대와 기업당 자금조달 규모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공모시장 규모와 유상증자 금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



/정성운 기자 zelkova@

“美 의약품 관세, 단기 영향 제한적 전망”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요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 포함”

미국 정부의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의 의약품 232조 관세와 관련해 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만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5개 의약품 수출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2일 의약품 및 원료

(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특히 의약품과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일본, EU(유럽연합)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의 신속의견 수렴을 평가하면 서도,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업계는 이날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MRO, 올해 韓 물가상승률 한 달 만에 0.4%p 상향 제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올해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
전년비 2.3% 오를 것으로 예상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기존의 1.9%에서 0.4%포인트(p) 올렸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원재료 등의 오름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AMRO는 6일 발표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1개월 전에 제시한 1.9% 대비 0.4%p 상향 조정된 수치다.

한국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들 중 하나라는 게 이번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2026 성장률에 대해서는 1.9%를 제시했다. 지난달 11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제시한 수준을 그대로 뒀다.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1.9%와 2.2%를 전망했다.

‘지역경제전망’은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다.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보고서는 아세안+3 지역의 성장률이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2025년 4.3%에서 2026년 4.0%, 2027년 4.0%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지역별 성장률 전망치는 ▲중국 4.5% ▲홍콩 2.8% ▲일본 0.7% ▲아세안 4.6% 등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세가 계속된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1900원을 넘기고 있다. /뉴시스

▲중국 0.6% ▲홍콩 1.9% ▲일본 2.4% ▲아세안 3.1%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향후 아시아 경제는 하방 위험이 우세하고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 발전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재개 등이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역내 에너지 수급 차질가능성을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을 감안해 당국의 유연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향후 경제상황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가 광범위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재정·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레아만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도 멘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경험·인프라 중심 ‘장기적 경쟁력’ 초점

» 1면 ‘스타필드·AI 인프라...’서 계속

이번 협력은 미국 정부의 AI 수출 프로그램 첫 사례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신세계는 부지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리플렉션AI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 정 회장은 “AI 없는 미래 산업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신세계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세계그룹은 글로벌 AI 기업 OpenAI와 국내 유통사 최초로 AI 커머스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AI 퍼스트’ 유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마트를 시작으로 그룹 전반에 AI를 확산해 단순 추천을 넘어 검색부터 결제·배송까지 이어지는 ‘AI 쇼핑 에이전트’ 기반의 차세대 커머스 모델을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연내 이마트 앱에는 고객의 구매 패턴을 학습해 쇼핑 목록을 제안하고 매장 편의 기능까지 지원하는 AI 에이전트가 탑재될 예정이다. 신세계의 유통 데이터·인프라와 OpenAI의 기술력을 결합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초개인화

고객 경험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과거 투자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의 미국 자회사 스타필드 프라퍼티스는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셰이퍼 빈야드’의 영업권 392억원을 지난해 말 전액 손상자산 처리했다. 해당 와이너리는 신세계그룹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2022년 3077억원을 들여 인수한 것이다.

2022년 당시 국내 와인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돌파하며, 와인 고급화와 위스키 등 새로운 주류에 대한 수요 확대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글로벌 와인시장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투자가 ‘확장’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최근 프로젝트는 ‘경험’과 ‘인프라’ 중심으로 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신세계의 기업가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해외반응은 좋은데
수출경험이 부족해서..”

**수출입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누가 우리회사에
맞게 도와줄 순 없나요?”

**전국에서 만나는
기업 전문가 및
중소기업 전담 SME지점장**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문제네요”

**2030년까지
생산적금융 93조 원 지원 계획**

“회계에 송금에..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요”

**복잡한 자금관리가 쉬워지는
ERP 연계 बैं킹 시스템**

국민적 스케일의 금융 지원부터 수출 전략, 경영 관리까지-
KB국민은행이 기업에 필요한 모든 성장의 순간을 함께 합니다

기업의 모든 순간, 국민이 있다

KB국민행복 성장 프로젝트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290호(2026.3.23.), 유효기간 2026.3.23.~2027.3.22.까지



수도권 민심 잡아라... 여야, '민생·주거' 공약 경쟁 가열

민주 수원, 국힘 인천서 현장 행보
與, 민생대응 위해 추경 조기처리 약속
野, '천원주택' 전국 확대 공약 검토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6일 수도권 현장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수원에서,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주거 정책을 공약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경기지사 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이 자리엔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1400만명으로 최대 인구를 지닌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며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기 처리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데 많이들 어려워 하시지만 이번에 긴급 편성된 추경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안심하고 계신 것 같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역시 민주당은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 '돈든다'고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및 상인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오는 10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약속드린대로 추경을 통과시켜 내수가 돌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쟁 추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현장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데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추경안 공격이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을 가리기 위함이라면 그것이 바로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와 후보들은 곧이어 수원못골 시장에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같은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인천에서 첫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인 '천원(1000원)주택'을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장에서 최고위를 열고 "인천이 인구 위기 반전을 이룬 토대는 바로 천원주택"이라며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과격적인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 결과, 청년 세대가 인천으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원주택을 우리 당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천원주택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천원주택'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현금 뿌리겠다고 달



장동혁(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장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려드는 것이 포퓰리즘 공약이고,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 그리고 전월세 문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풀어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중독된 민주당식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주택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주거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반값 전세 도입, 초저금리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절감형 정책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직접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전

국 선거에서 이긴다. 인천 선거에서 지면 전국 선거에서 진다. 정치권의 통설"이라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병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은 "선당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바빠야 하지 않나 싶다. '선민후당'이라고 생각한다"며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갈등과 싸우기만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박경수·김보민

인천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개헌안 내달 7일 본회의 의결 전망

국민의힘 제외 6개 정당 공동 발의
정원오 의혹 제기한 김재섭 제소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 의결해서 20일 동안 공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문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 정당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

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겼다.

아울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원오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당에서 정원오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포포) 고발했는데 원내에서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원오(전)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출장 서류에 여직원 이름이 '남성'으로 둔갑돼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경수 인천기자 gws0325@

'노동절'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 된다

공무원·교사 등 전 국민 휴일

5월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

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특히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靑 "호르무즈 지원·선박 연계 검토 안해"

외교부도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는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는 중동지역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내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보장, 글로벌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

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 아래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참모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비공개 특별대책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청와대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본과 프랑스 등 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잇달아 통과한 상황에서 해협 통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과의 통항 관련 직접 협상보다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 기자

與,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김정호

안호연 의원 6·3 지선 출마로 공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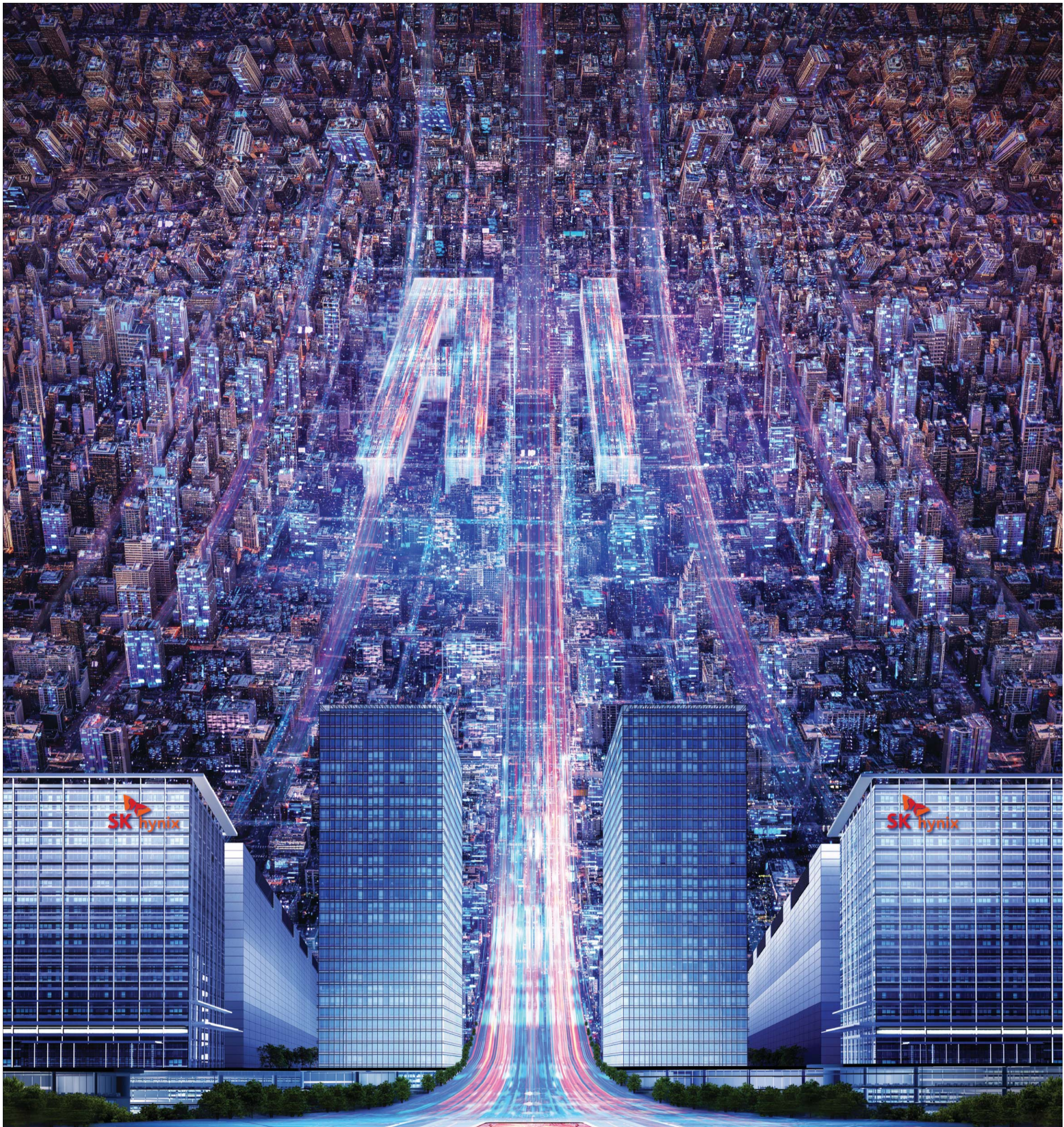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남 김해)이 6일 신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내정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당 소속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한 뒤 보궐선거 안건을 통해 김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박경수 인천기자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캐롯 품은 한화손보... 車보험 외형 확장·수익성 제고 나서

1분기 車보험 매출 3000억 넘고
3월 매출 1100억, 월기준 역대최대
車 손해를 하락, 장기보험 성장 등
'수익성 확보' 합병의 최종 과제

한화손해보험의 캐롯손해보험 흡수 합병이 자동차보험 시장 재편의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업계 전반에서 적자 구조를 드러낸 상황에서 한화손보가 디지털 고객과 온라인 채널 확보를 위해 외형 확대에 나선 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합병의 상징성보다 이 전략이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쏠린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해 10월 1일 캐롯손보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나채범 대표는 지난 3월 정기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로 보유한 캐롯손해보험을 성공적으로 흡수합병해 6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디지털 역량 중심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병의 1차 성과를 고객기반

확대와 디지털 역량 내재화로 규정한 셈이다.

실제 통합 효과는 외형 지표에서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한화손보는 이날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매출이 3000억 원을 넘어섰고, 3월 한 달 매출은 1100억원 이상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CM(사이버마케팅) 채널 매출은 통합 전 월평균 약 370억원에서 올해 1분기 월평균 4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시장점유율도 통합 전 5.6%에서 올해 1분기 6.0%로 상승했다. CM 채널을 통해 유입된 고객이 장기보험 T M(텔레마케팅)과 대면 채널로 이어지면서 장기보험 매출도 통합 이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향후 과제는 한화손보가 합병을 통한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녹록지 않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진정한 승부가 놓여 있는 셈이다.

이번 합병은 업계 구조 변화도 보여줬다. 2025년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한화·메리츠·흥국·롯데·에이스 등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9.4%로 전년보다 1.1% 포인트(p) 상승한 반면, 약사·하나·캐롯 등 비대면전문사의 점유율은 5.6%로 0.8%p 하락했다. 디지털보험 수요 자체가 사라졌다고보다, 독립 디지털보험사 모델이 기존 손보사 내부의 온라인 채널 전략으로 흡수·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화손보의 캐롯 합병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수익구조 전환이다. 1분기와 3월 매출 등 초기 외형 성과는 확인됐지만, 합병의 최종 평가는 자동차

보험 손해를 부담을 얼마나 낮추고 확보한 고객 기반과 디지털 채널을 장기보험 성장으로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느냐가 숫자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화손보는 캐롯이 쌓아온 온라인 가입 기반과 모바일 중심 고객 접점, 디지털 운영 역량을 전자 경쟁력으로 흡수해 자동차보험 판매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캐롯손보와의 시너지는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과 데이터 역량을 전사에 확산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축적한 디지털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보험에서도 효율성과 성장 기반을 함께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평균 3.19%' 저축은행, 예금 금리 올린다

경제 변동성 확대... 수신확보 나서
조은저축, 정기에금 최고 3.55%
HB저축, 비대면 예금 3.53% 등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선보이며 수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 환율 상승, 증시 변동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정기에금 평균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달 대비 0.13%p(포인트) 올랐다.

대표적으로 가장 높은 예·적금 금리 수준을 보이는 곳은 조은저축은행이다. 조은저축은행의 '정기에금' 금리는 연 최고 3.55%다. 이어 HB저축은행이 '비대면 회전정기에금' 상품으로 3.53%의 금리를, DH저축은행이 '정기에금단리식', '정기에금복리식'으로 각 3.52% 수준의 금리를 내세우고 있다.

조흥저축은행의 'e-정기에금', 페퍼스저축은행의 '페퍼스 회전정기에금',

'회전정기에금', 상상인저축은행 '뱅크뱅크 정기에금' 등의 상품들도 연 최고 3.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존보다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나선 곳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정기에금 상품 금리를 최대 3.3%로 인상했다. 기존 최대 연 3.2%에서 0.1%p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기준의 정기에금 상품에 적용된다.

다음저축은행도 'FI 하이브리드 정기에금' 상품의 금리를 올렸다. 기본금리 연 2.0%(세전)에 만기 유지 시 추가금리 1.5%p를 제공한다. 예금 상품의 만기만 지키면 최대 연 3.5%(세전)의 금리를 받아볼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가입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다.

저축은행들이 최근 환율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자금 운용처를 찾는 고객을 다시 유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증시로 빠져나갔던 자금

을 다시 유인하겠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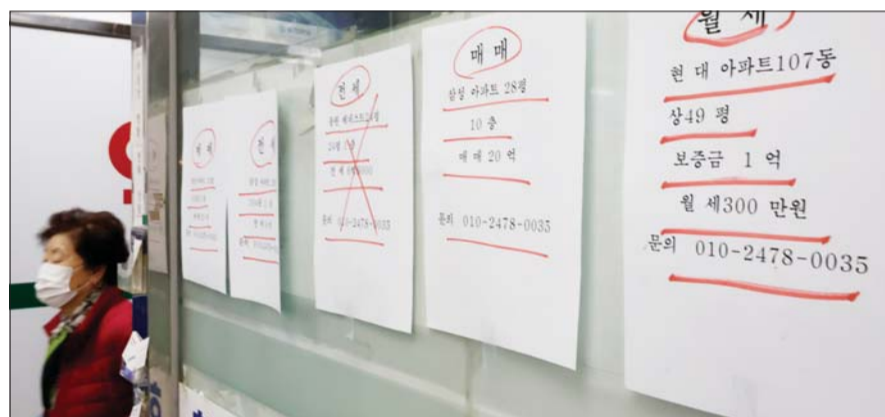
실제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수신은 전년 말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신 축소로 인해 수신까지 축소된 것도 있지만,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금 이동이 있었던 것도 수신 잔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업계가 흑자전환을 이룬 것도 한몫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의 당기순이익은 4173억원으로 전년 말 보다 8405억원 증가했다. 수신 확보를 통해 이자이익을 늘려 영업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행보로 분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수신 확보는 아니라는 입장이 나온다. 이번 예금 금리 인상은 고객을 다량으로 유치하려는 것보다 빠져나간 자금을 되찾아오는 '방어'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업권 관계자는 "여전히 여신 확대 운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를 통해 수신을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신 기자 wotjs4187@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가구 매입

지난달 월 기준 역대 최대실적 기록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가구를 매입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월평균 매입 물량도 884가구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7649가구에 달한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

업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3월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685건을 심의해 698건을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3만7648건으로, 전체 신청 중 약 61.6%가 가결됐다.

이들에게는 주거·금융·법률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총 6만1462건으로, 경·공매 지원, 대출 지원, 공공임대 제공, 긴급 주거지원 등이 포함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금융위,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표준화된 위험관리체계도 신설한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거래에는 계정 분리 및 다중 승인체계를 통해 사고 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빙썬 오지급 사태 이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5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

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된 '긴급대응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5개 거래소 가운데 3개 거래소는 잔고대사(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 및 검증하는 절차)를 24시간 마다 실시하고 있었다. 검증 빈도가 지나치게 길어 오지급 등 사고 발생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잔고대사 과정에서 오지급 등 사고로 인해 큰 과실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래 차단조치' 등 대응 체계도 불충분했다.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에 대해 분기별로 회계법인 실사를 받고 있으나,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외부 공개하는 등 형식적인 공시에 그쳤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긴급대응반 점



/금융위원회

검결과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면서 "24시간 거래가 이뤄짐에도 장부와 지갑 상 고객자산을 상시 대사하는 시스템 운영은 미흡하며, 인적·시스템 오류 대응 등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DAXA는 4월 중으로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우리은행, 15개 지점 '100년 점포' 지정

창립 127주년 기념 브랜딩 사업

우리은행은 창립 127주년을 기념하고자 100년 경과 점포를 대상으로 브랜딩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및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은행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확장하고자 추진된다.

먼저, 오는 4월 ▲종로금융센터 ▲서울시청금융센터 ▲인천지점 ▲전주금융센터 ▲동래금융센터 등 100년 이상 영업을 유지한 15개 점포를 '100년 점

포'로 지정한다. 해당 점포에는 역사와 전통이 새겨진 현관과 조형물을 설치해 오랜 세월 지역 금융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해 온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고객을 향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우리은행 고유의 시각적 요소를 한층 강화한 '헤리티지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 고객 접점 전반에 도입한다. 새 디자인은 쇼퍼백과 명함 등 고객이 일상에서 접하는 물품에 우선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역사적 깊이와 브랜드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안승진 기자

삼성·LG, AI 서버용 기판 확대... 글로벌 시장 정면승부

삼성전기 AI 분야 무게중심 이동
FC-BGA 풀가동 전제 증설 검토

LG이노텍 AI·모바일 투트랙 전략
이르면 2028년 유리기판 양산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LG이노텍 구미사업장 전경.

LG이노텍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가 반도체 기판 시장의 글로벌 판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일본과 대만 업체들이 선점해온 고사양 기판 시장에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국내 부품사들의 존재감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켓츠에 따르면 글로벌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시장은 2025년 23억달러에서 2026년 24억6000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가속기, 네트워크 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모바일 중심이던 기판 수요도 데이터센터와 고성능컴퓨팅(HPC)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미 무게중심을 AI 서버 쪽으로 옮긴 상태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1월 CES 2026 현장에서 FC

-BGA 수요 가운데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비중이 60~7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삼성전기의 고객 수요가 생산능력을 50% 이상 웃도는 것으로 전해지며 기판 시장 재편도 AI 인프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LG이노텍은 모바일용 고부가가치 기판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AI 서버용 기판으로 사업 축을 넓히는 이중 전략을 펴고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기존 빅테크 고객사 외에 지난해 글로벌 AI 반도체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모바일 중심 사업 구

조에서 AI 서버용 기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판 시장 전반으로 경쟁 구도가 확대되고 있다.

먼저 일본 이비덴과 대만 유니마이크론, 킨서스 등은 이미 AI 서버용 고사양 기판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대만 업체들은 최근 AI 서버용 고다층 기판 수요 확대에 맞춰 생산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으며, 일본 업체는 고성능 프로세서용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ABF) 기판 증설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해외 기업들은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시장 재편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만 유니마이크론은 올해 설비투자 계획을 당초보다 75% 확대했고, 킨서스와 일본 이비덴 역시 대규모 증설 계획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기는 하반기 FC-BGA 풀가동을 전제로 증설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차세대 승부처로 꼽히는 유리기판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시장은 2025년 2억2800만달러에서 2031년

5억7200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AI 가속기와 고성능컴퓨팅(HPC) 수요 확대에 따라 유리기판이 차세대 패키징 경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이노텍은 주주총회에서 빠르면 2028년 유리기판 양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삼성전기 역시 AI 서버용 고사양 기판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차세대 기판 기술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기존 FC-BGA 시장 주도권 경쟁과 별개로, 유리기판 양산 시점과 고객사 확보 여부가 중장기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모바일 신제품이 기판 시장을 좌우했다면, 올해부터는 AI 서버 투자와 글로벌 고객 확보 여부가 시장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라며 "국내 부품사들이 일본·대만 중심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느냐가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유가 충격에 친환경 연료 급부상... 전기차 시장 새 국면

소비자들 유지비 부담 가중
가성비 전기차 판매량 급증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다양한 프로모션과 고유가 현상으로 막대한 화재 공포로 시작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동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완성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1분기 전반에 걸쳐 이어지던 성장세가 지난달 더 가팔라지면서 전동화 차량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현대차·기아의 합산 전기차 판매량은 2만3996대를 기록했다.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지난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현대차 아이오닉 5

(1만2169대) 대비 약 두 배 늘었다.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은 7809대로 전년비 38% 상승했고, 기아 전기차도 전년비 148.6% 늘어난 1만6187가 팔렸다. 기아는 지난해 EV5와 EV6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공격적 판매에 나선 만큼, 판매량이 크게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가성비(가격

대비성능)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BYD의 소형 전기차 돌핀은 누적 계약대수가 2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YD는 국내 출시하는 돌핀의 기본 모델 2450만원, 액티브 트림 292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돌핀은 해치백 모델로 한국GM 쉐보레 볼트EV와 유사

한 크기를 갖추고 있다. 돌핀은 BYD를 대표하는 글로벌 주력 소형 전기차로 이미 유럽에서 성능을 검증 받았다. 업계에서는 휘발유, 디젤 가격이 폭등하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1월부터 모델 3와 모델 Y 등 주요 모델 가격을 최소 300만원, 최대 900만원까지 인하했다. 그 결과 테슬라는 3월 한 달 동안 1만 1130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월간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흐름이 전기차 판매의 성장세를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전쟁이 중단되더라도 유가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유지비 부담이 낮은 전기차 판매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인텔릭스는 에스원과 '웬니스 서비스 영역 내 비전 AI 기반 보안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K인텔릭스

SK인텔릭스 내달 AI 보안 영상 서비스

SK인텔릭스는 에스원과 '웬니스 서비스 영역 내 비전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SK인텔릭스는 협약을 바탕으로 다음달 웬니스로봇 '나무엑스'(NAMUHX)를 활용한 AI 보안 영상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솔루션은 로봇이 직접 이동하며 상황을 감지하는 보안 체계를 구현한 것이 핵심이다. /차현정 기자

LS일렉트릭, 美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초고압 변압기 공급

7026만달러 규모 계약 체결

LS일렉트릭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맺으며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자회사 LS파워솔루션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약 7026만달러(약 1066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LS파워솔루션은 미국 중부 지역에 구축되는 빅테크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용 마이크로그리드에 345kV급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한다. 공급 기간은 2027년 4분기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데이터센터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에 4600만달러 규모의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자회사를 통해 초고압 변압기 공급까지 맡게 되면서 송·배전을

아우르는 전력 인프라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LS파워솔루션은 지난 2024년 LS일렉트릭에 인수된 초고압 변압기 자회사다. 지난해 KOC전기에서 LS파워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154kV 기술력과 설비를 보유하고 한전에 초고압 변압기를 납품해온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LS일렉트릭에 인수된 이후에는 생산 품목을 345kV급까지 확대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고객 기반을 넓히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차 "뽀로로와 운전하세요"

현대차가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를 품는다.

현대차는 아이코닉스와 협업해 신규 디스플레이 테마 '뽀로로 즐거운 기차 여행', '다요 알록달록 차고지', '잔망루 피 오리지널'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테마를 적용하면 시동을 걸고 끝 때의 애니메이션, 계기판, 내비게이션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캐릭터 디자인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 차종은 아이오닉9, 디올 뉴 넥쏘, 더 뉴 아이오닉6, 2026 쏘나타 디엡지 등이다. /양성운 기자

LS에코에너지, 초고압 호조 타고 '희토류·해저사업' 탄력

1분기 매출·영업익 두 자릿수 성장
LS-VINA 초고압 케이블 수출 호조
라이너스와 희토류 금속화 추진
방산·전기차 겨냥 비중국망 강화
베트남 해저케이블 JV 설립 가시화

LS에코에너지가 초고압 케이블사업 호조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가 관련 사업 전반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희토류 금속화와 해저케이블 사업까지 구체화되면서 단순한 외형 확장을 넘어 공급망 재편 대응과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체질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업계에 따르면 LS에코에너지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



LS에코에너지 베트남 생산법인 전경.

/LS에코에너지

엔가이드는 연결 기준 매출액이 2527억원, 영업이익이 171억원으로 각각 10.67%, 11.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LS-VINA를 중심으로 한 초고압 케이블 수출 호조가 실적 개선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맞춰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했고, 초고압 중심의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전기동 입가공 물량 증가, 판가 반영 효과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단기 실적 개선과 함께

희토류 사업의 전략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방위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 관련 공급망은 중국 편중이 심하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LS에코에너지는 호주 희토류 업체 라이너스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원료 조달망 확보와 금속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중국 공급망 기반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LS에코에너지는 연내 베트남 LSCV 공장에 금속화 설비를 구축하고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우주항공과 미사일 등에 쓰이는 방산용 희토류 금속 생산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로봇과 전기차용 금속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산 규모는 방산용

사마륨과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등을 포함해 연간 2500톤 수준이다. 이는 1만톤 이상의 영구자석을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해저케이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PTSC)와 추진 중인 해저케이블 합작법인(JV) 설립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업계에서는 연내 설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고압 케이블을 중심으로 한 본업 경쟁력이 실적을 반치고 있는 가운데 희토류와 해저케이블은 중장기 성장성을 키울 수 있는 카드"라며 "특히 희토류는 공급망 안정이 중요해진 상황이라 비중국 밸류체인 구축 여부가 향후 사업 경쟁력 확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한화오션, AI접목·현지연계...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총공세

6월 사업자 선정 앞두고 막판 경쟁
코히어와 손잡고 설계 혁신 추진
현지 협력사 늘리며 공급망 확장

오는 6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한화오션과 독일 티엔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막판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협력과 현지 파트너십 확대를 잇달아 내놓으며 잠수함 성능 경쟁을 넘어 설계·운용 역량과 산업 기여를 결합한 패키지 경쟁력을 부각하고 있다.

6일 캐나다 국방 전문지 CDR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 AI 기업 코히어와 함정 설계·조달 핵심 문서인 구



한화오션이 건조한 잠보고 III Batch-2 잠수함.

/한화오션

매주명명세서(POS)를 자동화·검증하는 개념실증(PoC)에 착수했다. 기존 선박 데이터와 설계 입력값을 기반으로 POS를 자동 생성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검증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주기관 사양

에 적용한 뒤 향후 선체 구조와 배관, 전기·계장 분야로 확대를 검토한다.

한화오션은 앞서 지난 1월 한화시스템과 함께 코히어와 AI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설계·생산·운용 전반에 걸친 기술 협력을 추진해왔다. 이번 PoC는 해당 협력의 일환으로, 설계 영역에서 AI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한 단계로 평가된다.

한화오션은 AI 협력과 함께 현지 산업 연계도 확대하고 있다. OSI마리타임 시스템스, EMCS인더스트리스, 텍솔마린, 자스트랩테크놀로지스, 커티스라이트 등 캐나다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오는 16일 토론토에서 '한화협력사 설명회(Hanwha Supplier Da

ya)'를 열어 추가 파트너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캐나다 기업·대학과 30건 이상의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40년까지 최소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조선·철강·인공지능·항공우주분야 협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TKMS도 AI와 산업 패키지를 동시에 내세우고 있다. 코히어와 협력해 잠수함 운용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의사결정 지원과 정보관리, 교육·훈련, 보안 인터페이스 등 운용 체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구상이다.

현지 산업 기여 확대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TKMS는 캐나다 기업 및 토착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캐

나다 항공우주 기업 마젤란과는 어뢰 생산 및 운용 지원 분야 협력에 나섰다. 캐나다 방산업체 CAE와는 CPSP를 겨냥해 함교·작전실 시뮬레이터, 소나·레이더 훈련 시스템, 전투관리 훈련 체계, 대잠전(ASW) 시뮬레이션 등 훈련·시뮬레이션 솔루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희토류·광업·배터리 등을 포함한 투자 패키지도 검토 중이며, 독일 정부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 도입 추진 역시 절충교역 전략의 일환으로 거론된다.

양측이 기술과 산업 기여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캐나다의 사업 평가 구조와 맞닿아 있다. 캐나다는 산업기술혜택(ITB) 정책에 따라 수주 기업이 계약 규모에 상응하는 경제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생산·정비·운용 전반의 기술 이전과 공급망 구축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유혜은 기자 dhale@

LG, 청년 AI 인재 94명 엑사원 경량화 도전

에이머스 해커톤 본선 열어
누적 참가자 2만명 돌파
채용박람회도 함께 진행

LG가 지난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AI 기술로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프로그램 'LG 에이머스 해커톤'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LG 에이머스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광모(구) LG 대표의 인재 육성 철학을 반영한 LG의 대표 청년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다.

LG 에이머스는 2022년 하반기에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 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가하며, 대한민국 청년 AI 인재 교육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에는 LG 에이머스 8기 지원자 2339명 중 온라인 교육부터 해커톤 온라인 예선까지 통과한 94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LG 에이머스(Aimers) 해커톤 참가자들 모습.

/LG

이번 주제는 LG AI연구원이 출제한 '엑사원(EXAONE) 경량화 모델 개발'이다.

'거대언어모델(LLM) 경량화'는 AI 모델의 성능과 정확도는 유지하면서도 모델의 크기는 줄이고, 추론 속도는 개선하는 최적화 기술로,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개별 기기 내부에서 AI 모델을 독립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가대표 AI' 엑사

원을 성능은 높으면서도 크기는 줄이는 도전 과제를 진행했고, 총 27개의 '경량화 엑사원'을 개발했다.

LG는 성능이 검증된 경량화 모델들은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 공개해 글로벌 개발자들이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G는 모델의 성능과 코드 평가, 구두 발표를 통해 상위 수상 3개 팀에게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으며, 이들에게 LG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박서희·조하영·손민주 씨가 수상했다.

LG는 대회 이튿날인 5일 LG AI연구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주요 계열사 8곳이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다.

이날 각 사의 인사 담당자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 상담과 향후 채용 시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LG AI 인재풀(pool) 등록을 안내했다.

또한 채용 전문 컨설턴트의 개인 맞춤형 1:1 컨설팅과 모의 AI 면접 강의 등을 제공해 청년 AI 인재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했다.

LG는 AI대학원 수준의 강의부터 채용 지원 활동까지 모든 과정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LG 에이머스는 AI 기초 지식과 코딩 역량을 갖춘 19세에서 2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 일정을 고려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기간 연 2회 진행된다.

/원관희 기자

삼성·LG 차량5부제 확대 에너지 절감 기조 동참

삼성과 LG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에 맞춰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최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공공부문 차량 5부제와 나프타 수급 조정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에너지 절감 기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6월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LG가 국내 전 사업장에서 차량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한 SK·현대차에 이어 4대 그룹 모두 차량 5부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삼성은 정부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8일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차량 5부제를 자율 시행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LG도 이날부터 전 계열사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LG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차량 10부제를 시행한 지 열흘 만에 에너지 절감 조치를 강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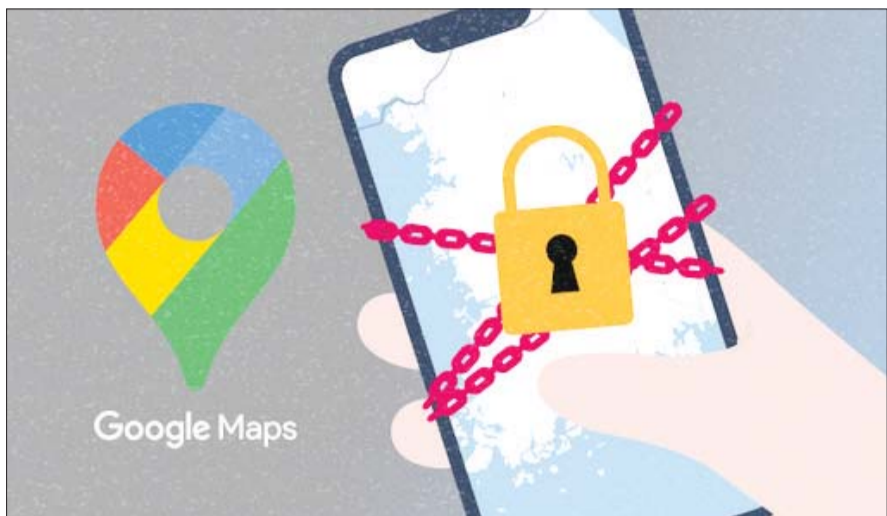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빅테크, 韓 정밀지도 ‘눈독’… 공간정보 시장 판 커지나

구글에 제한적 반출 전제로 허가 이번 결정으로 애플 등 요청 가능성 네이버·카카오, 대용 전략 고심

디지털 주권 논의 등 함께 이어져야 현행 의사결정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정부가 국가안보 논란이 일었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을 조건부 허가했다. /메트로경제

◆구글 이슈 재부상…정책 기조 전환 신호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적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국내 서버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이후에도 해외 기업의 반출 요청이 이어졌지

만, 일부는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다수는 보류 또는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정부가 엄격한 보안조건을 전제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책 기조가 전환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보안처리된 영상

사용과 좌표 표시 제거, 국내 제후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정보 가공 후 제한적 반출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글로벌 빅테크 확산 가능성…국내 기업 ‘긴장’

시장에서는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추가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이 과거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추가 요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BMW 등도 유사한 요구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며, 정책 변화에 따라 경쟁 환경이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티맵모빌리티와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지도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과 디

지털 트윈 등 핵심 산업의 기반 데이터인 만큼, 데이터 통제권을 둘러싼 이른바 ‘디지털 주권’ 논의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향후 다른 해외 기업까지 동일한 요구를 할 경우 정책 일관성과 관리 체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결정 구조 개선 필요…컨트론타워 강화 요구

전문가들은 현행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한다. 지도 반출 여부를 심의하는 협의체가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안의 중요도에 비해 위상이 낮다는 평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협의체 격상과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기술, 안보, 통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보다 종합적인 판단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LG U+, ‘로밍패스’ 데이터 최대 2배 확대

기존 프로모션, 정규 요금제에 반영 연휴 기간 해외여행 비용 부담 완화



LG유플러스가 대표 상품인 ‘로밍패스’의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상향하는 개편을 진행하고 6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이 5월 1일부터 확대하는 데이터 제공량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비 안정적인 연결과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제시했다. 가입 시 제공되는 안내 문자도 개편해 로밍 관련 정보를 간결하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했다. 일부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과 항공 지연 보상 보험도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seoh@

다음 이달 말 텍스트 숏폼 커뮤니티 전면 개편

짧은 글 중심 소셜 피드형 구조

다음은 6일 SNS 형태의 ‘다음 커뮤니티’ 서비스를 4월 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짧은 글 중심의 ‘텍스트 숏폼 광장’을 지향한다. 이용자가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확인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셜 피드형 구조로 설계했다. 모바일 앱 기반으로 운영하며 기존 다음앱 내 커뮤니티 탭을 전면 개편해 적용한다.

이에 앞서 다음은 지난달 31일까지 ‘커뮤니티 공식 크루’ 모집을 마쳤다. 선발 인원은 오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활동하며 서비스 사전 테스트에 참여한다. 이를 기반으로 완성도를 높인 뒤 이달 말 정식 공개에 나선다. /최빛나 기자

넥슨 ‘바람의나라’ 30주년… 30억 규모 행사

기념 콘텐츠·대규모 업데이트 단행 게임 아이템·굿즈 제공 행사 병행

넥슨은 6일 대표 온라인 RPG ‘바람의나라’가 지난 5월 서비스 30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바람의나라’는 세계 최장수 상용화 그래픽 MMORPG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작품이다. 1996년 서비스 시작 이후 30년간 운영을 이어오며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성장 과정과 궤를 같이해 왔다. 2023년 서비스 1만일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0주년을 맞으며 장기 서비스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넥슨은 기념 콘텐츠와 함께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지난 2일 신규 지역 ‘신라’와 신규 직업 ‘흑화랑’을 추가했다. 근거리와 원거리를 넘나드는 전투 스타일을 적용해 플레이 경험을 확장했

다. 9차 승급과 최대 레벨 949 확장, 신규 레이드 ‘하칸’과 ‘브리트라’ 등 고난도 콘텐츠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협동 콘텐츠 ‘괴력난신’을 추가해 다수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플레이 구조를 강화했다. 이용자는 토벌을 통해 ‘신력’을 개방하며 캐릭터 성장 폭을 넓힌다.

30주년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총 30억 규모의 바람포인트 미션 이벤트를 중심으로 게임 아이템과 굿즈를 제공하고 성장 지원 이벤트를 병행한다. 다른 게임과의 크로스 이벤트도 5월까지 이어간다.

IP 확장 전략도 병행한다. 공식 스토어 ‘도토리샵’을 통해 장패드, 키링, 티셔츠 등 굿즈를 선보이고 5월에는 화투 세트, 필름 카메라 등 추가 상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디지털 굿즈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LG CNS, 한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참여

예금 토근 결제·재정 시스템 고도화

LG CNS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참여해 예금 토근 기반 결제·재정 집행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과 정부, 은행권이 협력해 예금 토근을 결제수단 및 재정 집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이다. LG CNS는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주사업자로 참여해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담당한다.

2단계에서는 예금 토근의 상용화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예금 토근을 국고보조금 집행에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보조금을 예금 토근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예금 토근이 적용될 경우 집행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투명성이 높아지고, 용도·기간·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운영돼 재정 집행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LG CNS는 생체인증, 개인 간 송금, 자동 입출금 등 기능을 개발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참여 은행과 사용자도 확대된다. 기존 참여 은행에 더해 BNK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용자는 예금을 토근으로 전환해 온라인 매장에서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편의점, 마트, 커피숍, 서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DDP서 ‘카카오프렌즈’ 콘텐츠 만나요”

카카오-서울디자인재단 ‘맞손’

카카오는 6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콘텐츠 협력을 통한 디자인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과 카카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IP와 DDP 공간을 결합한 콘텐츠 협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첫 협력으로 양사는 지난달 21일부터 DDP 개관 12주년 기념 축하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4월 12일까지 DDP 상설 미디어 전광판에서 상영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다. 카



카카오는 지난 3일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콘텐츠 협약식을 진행했다.

카카오는 캐릭터 기반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제작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를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서울라이트 DDP’에서 선보인다.

서울라이트 DDP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과 3D 맵핑 디스플레이 분야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국내 대표 미디어아트 행사다. /최빛나 기자

‘최고의 기부자’ 약속 지킨 16년... 박현주의 347억 사회환원

(미래에셋그룹 회장)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 기부 장학생·사회복지사업에 쓰여 ‘따뜻한 자본주의’ 철학 내세워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그룹

“최고의 부자보다 최고의 기부자가 되겠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16년째 같은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말이 아닌 숫자로 쌓인 기록이다. 2010년부터 이어진 배당금 전액 기부는 올해로 누적 347억원에 달했다. 한 번의 결단이 아닌, 해마다 반복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미래에셋그룹은 6일 박 회장이 2025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받은 배당금 16억원을 전액 기부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는 ‘지속성’에 있다. 통상 기업인의 사회공헌이 실적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달리,

박 회장의 기부는 경기나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이어져 왔다.

시작은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 이듬해인 1998년 미래에셋육영재단을 만들면서다. 2년 뒤인 2000년 박현주 회장은 사재 75억 원을 출

연해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설립했다. 박 회장은 2008년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을 이 땅의 젊은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16년 동안 35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재단에 기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등 여러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이 약속은 단 한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벤트성 ‘기부’가 아닌 경영 원칙이자 경영 철학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기부한 돈은 장학생 육성과 사회복지 사업에 쓰이고 있다. 장학사업의 슬로건은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이다. 2000년 5월부터 시작한 장학사업은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미래에셋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자는 지난해 말 총 50만명을 넘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미래에셋희망재단의 누적 사회공헌 사업비는 2025년 말 기준 1127억원에 달한다. 단

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해외 연수, 글로벌 네트워크 경험 제공 등 ‘기회 확대’ 중심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수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과 청년 인재 육성 등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 회장의 행보는 미래에셋의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그룹은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자본이 축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해왔다. 박 회장의 개인적 기부는 이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기부금의 사용처 역시 일관된다.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닌, 미래 경쟁력과 연결된 영역에 집중된다. 이번 기부금도 그룹 공익법인을 통해 인재 육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 회장의 기부는 방식에서도 확장되고 있다. 2023년에는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25%를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현금 중심의 기부에서 자산 기부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해당 기부는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 회장의 행보를 단순한 미담으로만 보지 않는다. 자본이 축적되는 방식뿐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까지 설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기업이 창출한 가치가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부 자체보다 중요한 건 16년 동안 한번도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자본시장 내에서 보기 드문 ‘일관성 있는 사회환원 모델’”이라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실적 기대감 솔솔... 삼전·하이닉스 주가 ↑

증권사 3곳, 목표주가 상향 조정 ‘지금 가장 저평가 구간’ 평가도

‘터보퀀트(TurboQuant)’ 충격에 흔들렸던 반도체 랠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자심리가 급반전되고, 시장의 시선도 불확실성에서 성장성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는 각각 3.71%, 3.78%씩 상승했다. 1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실적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도 1.14% 올랐다.

지난달 반도체주는 구금이 내놓은 메모리 압축 기술 터보퀀트 이슈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22.77%, SK하이닉스는 23.94%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터보퀀트의 등장을 오히려 시장 확대 기회로

보는 시각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역대급일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 4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5.49%, 9.76%씩 상승했다.

이날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제시한 증권사 4곳 중 3곳이 눈높이를 올렸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증권사 중 최고가를 제시했다.

이 증권사 채민숙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0.7% 성장한 127조원, 영업이익은 648% 증가한 50조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의 컨센서스인 37조원을 35% 상회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은 48조3000억원으로, 전사 영업이익의 약 96%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6년과 2027년 실적 전망치도 대

폭 상향했다. 1분기와 2분기 가격 상승을 상향을 반영한 올해 평균판매가격(ASP) 상승률 전망은 컨벤셔널 디램(DRAM)이 기존 186%에서 221%로, 낸드(NAND)는 기존 92%에서 248%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202조원에서 302조원, 2027년 277조원에서 392조원으로 올려잡았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호실적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 6곳 중 4곳이 목표주가를 상향했으며, KB증권은 가장 높은 목표가인 17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38조1166억원, SK하이닉스는 31조562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투톱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합산치는 약 70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약 90조8000억원)의 76.7%에 해당한다.



ChatGPT로 생성한 ‘1분기 역대급 실적 전망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이미지.

장기적인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합산 영업이익은 382조3294억원 수준으로, 6개월 전 전망치인 96조7525억원보다 약 4배 상향될 수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 증가의 가속 구간에 진입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실적상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지금이 가장 싼 구간”이라고 평가

했다. 이거 그는 “예상치를 웃돈 1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고객들은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선수금과 위약금 조항 등 구속력이 있는 계약 조건까지 제시하며 공급 확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불법 도박 대신 미래에 투자하세요”

한양증권, 청소년 보호 캠페인 동참



김병철 한양증권 대표이사(가운데)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한양증권

한양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확산되는 청소년 대상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사회적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이번 캠페인에서 ‘불법 도박 대신, 미래에 투자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인식 제고와 건전한 투자 문화 확산에 나섰다.

김병철 한양증권 대표이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 도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건전한 가치관과 금융 인식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거래소 “금현물 투자하면 골드바 기회”

계좌 개설·거래 고객 대상 이벤트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 키움증권과 함께 금현물 계좌 신규 개설 및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KRX금시장골드바를 잡아라’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금현물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와 기프트콘 등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 기간 중 금현물 계좌에서 10g 이상 매수한 고객에게는 10g 골드바(약 270만원 상당)를, 1g 이상 매수 고객에게는 3g 골드바(약 80만원 상당)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금현물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는 기프트콘(약 1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장내 금현물 매매시장인 KRX금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금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금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점도 반영됐다.

KRX금시장은 금을 주식처럼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매매차익 비과세, 한국조폐공사 인증 순도 99.99% 금지급 거래 등이 특징이다.

/신하은 기자

KB자산운용 AI 전력 인프라 ETF

KB자산운용은 오는 7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투자하는 ‘RISE 미국AI전력인프라액티브ETF’를 상장한다고 6일 밝혔다.

빅테크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자체 발전 설비를 발 빠르게 구축하고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자력,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전력 솔루션 도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RISE미국AI전력인프라액티브ETF’는 이 같은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한 미국 전력 인프라 기업에 선별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다. /신하은 기자

FTA 등 통상조약 피해기업에 '연 2%' 용자·맞춤 컨설팅 지원

산업부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컨설팅 시설자금 용자 비중 15% 대폭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의 고정금리로 용자를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용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용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인공지능)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용자 비중을 기존 7%에서 15%로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2008년~2025년간 자금 유형별 지원 비율은 운전자금(93%)이 대부분이었고, 시설자금은 7%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4월 6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전문가(관세사)의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영향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진공 통상변화대응 사업전환팀이나 전국 34개 지역 본·지부를 통해 상담이나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인력공, '도제도약지구' 약정 체결

고교 단계부터 취업·지역정주 연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위드스페이스에서 '도제도약지구' 운영을 위한 약정을 시·도 교육청 및 도제도약스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제도약지구는 일학습병행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인재양성 모델로, 이번 약정은 공단과 시·도 교육청, 도제도약스쿨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교 단계부터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약정 체결에 이어 2026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도 열렸으며,

공단 지부·지사를 비롯해 참여 학교, 시·도 교육청,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북은 스마트제조와 관광산업 ▲인천은 첨단 뿌리산업 ▲충남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국방 분야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양성 및 후학습 강화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석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도제도약지구는 지역과 교육,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인재양성 모델"이라며 "공단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고교 단계부터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3대 다변화로 민간 해외진출 견인

어촌·안전 등 사업 영역 대폭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외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에 발맞춰 '3대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를 발판으로 국제농업협력(ODA)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3대 다변화 전략은 ▲사업영역 다각화 ▲추진방식 다양화 ▲지원체계 다변화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위험을 낮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사업 영역을 기존 농업기반시설 위주에서 어촌, 환경, 안전관리, 공간정보 등으로 대폭 넓혔다. 라오스와 인도네시아의 '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키리바시 '어촌 개발사업', 라오스 '디지털 농지정보 구축'이 대표적이다.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농업기반시설 외 분야를 다루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민간의 수요와 강점을 결합해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첨단 농업 단지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민간기업 수요를 연계했다. 필리핀에서는 국내 농기계 기업과 함께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농기계 단지 조성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 발굴·기획부터 민간 수요를 접목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제농업협력 추진 효율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공사는 자금 지원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 현장 중심형 사업관리, 현지 정보 및 협력망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통해 국산 농기자재를 해외에 직접 도입하고 있다. 한국형 국제농업협력사업인 'K-라이스벨트'에 농기계, 농약 등 국산 농기자재를 반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진출 초기부터 현지 정착까지 공사가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위험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한전, 춘천에 'ZEB 1등급' 사옥 짓는다

(제로에너지빌딩)

국내 업무시설 가운데 최초 건축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달성 목표

한국전력이 국내 최초로 대형 업무시설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사옥 건설에 나선다.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달성하는 대규모 공공 업무시설 사례로, 향후 에너지 신기술 실증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전은 강원본부 사옥을 공공·민간 최초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국내 업무시설 가운데 최초로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건물로 신축한다고 6일 밝혔다.

신축 사옥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연면적 1만6471㎡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당초 ZEB 3등급 예비인증을 받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K-RE100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등급으로 상향했다.

ZEB 1등급은 건물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의미하는 최고 등급이다. 대형 업무시설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



한국전력 강원본부 신축사옥 예상 조감도.

/한전

아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업무시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은 약 1500건에 달하지만, 연면적 1만5000㎡ 이상 대형 업무시설 가운데 ZEB 1등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달성을 위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대거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BIPV)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수소연료전지 등을 시범 도입해 건물 자체를 에너지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또한 향후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를 가변형 모

듈 구조로 설계해 공간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초기 투자 부담과 인프라 부족으로 민간 참여가 어려운 분야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강원본부 신축 사옥의 ZEB 1등급 추진은 공공기관이 정부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상징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 제로에너지빌딩 건설을 확대하고 에너지 신기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66개소에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재정 지원 외 현장 지원 코칭도 병행

노사발전재단은 일터 내 다양한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1차 지원대상 66개소를 선정해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완·개편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 재정 지원 외에도 현장 지

원 코칭을 병행하고, 개별 사업장 중심에서 지역·업종 단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재단은 1차 모집 기간 동안 접수된 개별 사업장 노사, 사업장 단체, 노사단체 등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총 66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전문가 현장 코칭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 수행계획 구체화 과정을 거쳐 협정체결

을 진행하고, 실무자 워크숍과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도 진행 중이다. 재단의 5개 권역별 노사상생센터를 통해 4월 중 지역 특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2차 모집은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스마트 해운물류산업 인재 육성

울산항만공과 지원 프로그램 가동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가 '스마트 해운물류산업 선도 융합인재 및 창업기업' 양성을 위한 2026년도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0년부터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해운물류 분야 접목을 위해 ▲융합인재 양성 ▲단계별 창업지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발맞춰 인공 지능(AI)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멘토링 사업과 인공지능(AI) 해운물류 공모전을 통해 현장형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 멘토링 사업은 ICT·AI 전문가와 취업 준비생이 팀을 이뤄 약 5개월간 해운물류 문제 해결형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수팀에는 해수

부 장관상과 울산항만공사 사장상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내달 6일까지다.

아울러 AI 해운물류 공모전이 'AI를 활용한 울산항 운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오는 7월 개최될 예정이다.

창업 지원도 단계별로 확대된다. ▲예비 창업자 발굴을 위한 '창업오디션'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니-콘텐츠'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오픈노베이션' 등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선정된 예비 창업자와 기업에는 1000만~4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울산항 기반 기술 실증 기회 등이 제공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시험에는 AI 기초지식 검증 과목이 도입된다. 학습 지원을 위한 표준 교재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송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티켓링크 | 문의 02-332-4902

해남군, 2.9조 투입...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 속도

삼성SDS컨소시엄, 건축허가 접수
2028년 10월 말 최종 준공 목표
전력망 위한 154kV 변전소 설치도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삼성SDS컨소시엄은 지난 3일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건축허가를 해남군에 접수하였고, 국가AI컴퓨팅센터는 4만9500㎡(1만5000평) 부지에 연면적 3만3000㎡(1만평) 규모로 지진과 화재에 강한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됐으며, 지상 2층의 전산동과 운영동, 부속동이 들어선다.

군은 4월 중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 분야 도서 착수 및 구조 계산 등 후속 공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착공계를 마무리하고 3분기에는 과일 및 토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28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8년 4월 시



국가AI컴퓨팅센터 조감도.

범운영, 10월 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건축허가에 앞서 필수적인 지구단위계획 및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삼성SDS컨소시엄측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이어왔다. 또한 향후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건축인허가 접수를 시작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은 실질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AI 시대의 국가전략자산인 컴퓨팅 인프라가 해남군에 들어섬에 따라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축이 해남군으로 이동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GPU 1만5000장을 탑재하고, 초거대 AI 모델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적 AI컴퓨팅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가AI컴퓨팅센터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저탄소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친환경

인프라의 모델로 설계되고 있다.

해남군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전력망 확충을 위한 154kV 변전소 설치 인허가가 조만간 완료될 예정으로 오는 7월 착공, 국가AI컴퓨팅센터가 가동되는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남군은 전력망 확충을 마중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추가 유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과 연구소들이 모여드는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의 건립에만 약 2조9000억원이 지역에 투입되며, 건설 기간 중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완공 후 국가AI컴퓨팅센터를 비롯한 연계 연구 기관 및 배후단지에 들어설 부품 등 제조업 등에 일자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주시

근로자 가정 교육비 부담 완화

영주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근로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가정의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으로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근로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로 동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고등학생 연 70만원, 대학생은 연 250만원 범위에서 등록금 150만원과 생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완도군

지역 전략산업 지원 주택 건립

완도군은 신지면 대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해양바이오연구단지 내 '지역 전략 산업 지원 주택'을 건립한다.

'지역 전략 산업 지원 주택 건립 사업'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모'에 선정됐으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착공한다.

사업비는 총 108억원을 투입하여, 주택 연면적은 2603㎡로 지상 4층의 공동주택 2동과 지상 1층의 부대시설 1동이 들어서며, 43세대는 25㎡(12평형), 24세대는 34㎡(16평형) 12세대는 59㎡(25.7평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세대를 세분화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부산근현대역사관

매주 토요일 '인문 콘서트' 운영

부산근현대역사관이 부산 개항 150주년을 맞아 4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인문 콘서트 '부산의 길을 묻다'를 개최한다. 행사는 역사관 별관에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월별 주제는 개항과 부산·부산의 시대·부산의 힘·부산의 유산·부산의 미래로 구성된다. 역사학·문학·민속학·정치경제학·도시계획학·미술학·기상학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자 15인이 연사로 나선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상국립대

경남·울산 합동 채용 설명회

경상국립대학교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7일 가좌캠퍼스 체육관에서 '2026년 경남·울산 지역 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국립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경남·울산 이전 공공기관 15개와 지역 기업 6개 기관, 항공, 방산, 관광 등 도내 34개 기업을 포함해 총 55개 기관이 채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어업용 유류비 25.8억 지원

어업인 월간 추가부담 21.5억 추산 인상분 20%, 6개월간 한시적 지원

경북도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류비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어업용 유류비 25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며 4월 기준 어업용 면세유 공급단가는 전월 드림당 17만7000원에서 27만6000원으로 56.1% 상승했다. 유류비는 출어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어업활동 위축과 수산물 생산 감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 지역 동력어선은 2700여 척으

로, 지난해 기준 월평균 2만1500드림 이상의 유류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가격 상승으로 드림당 약 9만9000원이 오르면 어업인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월간 유류비는 약 21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인상분 9만9260원의 20%를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도 기준가격 초과분의 70%를 지원해 유가 급등에 따른 수산업 기반 약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응해 도·시군비 28억원을 투입했으며, 2023년에는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대응해 16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북교육청, 교육자료 '월간 독도' 제작

독도 교육 지속성·접근성 강화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월별 교육자료 꾸러미 '월간 독도'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교원 독도탐사단 현장 영상과 경북교육청이 개발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성됐으며, 영상과 교수·학습자료, 참여형 퀴즈, 카드뉴스 등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월별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 흥미

를 높이면서 교원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자료가 기획됐다. 이를 통해 독도 교육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높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월간 독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배포된다. 월별 주제는 4월 독도의 위치, 5월 독도 바위, 6월 독도에 사는 사람들, 7월 독도의 자연환경, 9월 독도의 인문 환경, 10월 독도 수호대, 11월 독도는 왜 우리나라 땅인가, 12월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 등으로 구성됐다.

/경북=김준한 기자

함양군, 170억 투입해 거면·인당지구 정비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함양군이 십수 년간 이어온 축사 악취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도비 88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함양읍 소재지와 맞닿아 있는 거면·인당지구 축사 밀집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과 축사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악취 민원이 십수 년에 걸쳐 제기돼 왔다. 읍 소재지가 확장되면서 환경 개선 요구는 높아졌지만, 농가의 생업 문제와 대규모 예산 확보라는 벽에 부딪혀 수차례 정비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공모 선정의 배경에는 주민, 농가, 행정의 협력이 있었다. 특히 평생

일궜은 생업 기반을 내려놓아야 하는 축사 농가들이 "지역의 미래와 읍 소재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동참하겠다"며 결단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의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군 실무진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주민, 농가, 행정 간 신뢰로 이어진 결과라는 평가다.

군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70억원을 투입해 거면·인당지구를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축사 시설 정비를 통한 '공간 정비'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간 재생'으로 나뉜다.

정비 대상 지구 내 돈사, 우사, 폐축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에는 귀농귀촌 실습장, 주민 휴식 공간, 공용주차장, 퇴사림숲 등을 조성해 정주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에서 '시장회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도시 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아고다, 해외 관광객 숙박 혜택

최대 5%, 1만2000원 할인 쿠폰

부산시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아고다(Agoda)와 함께 부산관광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마케팅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에서 체결한 관광 교류·협력 업무협약의 첫 사업이다.

시는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신성장 시장 5개국을 중심으로 아고다 플랫폼을 활용해 글로벌 관

광허브도시 부산을 홍보할 계획이다.

'잊을 수 없는 부산(Unforgettable Busan)'을 주제로 해운대, 광안리, 감천문화마을, 해동 용궁사 등 대표 관광지뿐 아니라 황령산 봉수대 전망대와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등 야간관광 명소도 소개한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7월20일까지 부산을 찾는 해외 관광객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아고다 플랫폼을 통해 부산 지역 숙박 업체를 예약하는 해외 관광객에게는 예약당 최대 5%, 최대 1만2000원의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저당 트렌드 성숙 단계... 영양·식감 등 '대체 설계' 무게 이동

식품·음료업계, '채우기 전략' 강화

켈로그 통곡물·식이섬유 전면 배치
청정원 식물성 소재 기반 질감 개선
메가MGC 유산균 등 기능성 결합

최근 식품업계의 저당(低糖) 전략이 '얼마나 줄였는가'에서 '무엇으로 대체했는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당을 덜어낸 빈자리를 통곡물, 식이섬유, 유산균, 기능성 성분 등으로 채우는 이른바 '대체 설계'가 제품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으로 부상한 것이다. 단순 감미 조절을 넘어 영양 구성과 포만감, 식감까지 재설계하는 흐름으로, 원가 구조와 원료 수급, 제품 포지셔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저당 트렌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초기 저당 제품이 '덜 단맛'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덜 달지만 더 채워진 한 끼' 또는 '가볍지만 기능을 보

이같은 변화는 저당 트렌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초기 저당 제품이 '덜 단맛'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덜 달지만 더 채워진 한 끼' 또는 '가볍지만 기능을 보

청정원 하프 칼로리 마요네즈 /대상

1 HALF CALORIE MAYONNAISE /대상

2 하프 마요네즈 /대상



저당 그레놀라. /켈로그



저당 꿀배 XO 아쿠르트. /메가MGC커피

완한 음료'처럼 소비자 체감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단순히 당을 줄인 제품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지자 원료 조합과 영양 설계가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른 셈이다.

대표적으로 켈로그는 저당 그레놀라 제품에 통곡물과 식이섬유를 전면 배치했다. 당류를 대폭 낮추는 대신 올리브고당, 꿀, 스테비아 등을 활용해 단맛의 이질감을 줄이고, 고대곡물 '파로'를 포함한 통곡물 7종과 식이섬유를 더해 포만감과 식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당을 줄인 뒤 생길 수 있는 허전함을 원료 구성으로 상쇄한 사례로, '저당=가벼움'이라는 인식을 '저당=균형 잡힌 한 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소스류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나타난다. 청정원은 지방과 칼로리를 절반 이상 낮춘 '하프 칼로리 마요네즈'에 식이섬유와 미생물 발효 산출물 등 식물성 소재를 적용했다. 지방 저감으로 비어지는 조직감을 다른 소재로 메워 기존 질감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감 기술이 단순 감산이 아니라 '대체 충전'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료 시장에서도 '채우는 전략'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메가MGC커피는 hy와 협업한 '저당 꿀배 XO 아쿠르트'에 유산균과 과일 원료를 전면 배치했다. 당과 지방 부담을 낮추는 대신 유산

균 수와 풍미 요소를 강조해 기능성과 맛을 동시에 보완했다. 더벤티 역시 '벨런스업 스파클링'에 타우린과 비타민을 더해 저당·저칼로리 음료에 기능성을 결합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통곡물, 식이섬유, 기능성 원료, 발효 소재 등을 적용하면 원재료 단가와 공정 비용이 함께 상승하게 된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채우는 설계'를 택하는 것은 단기 마진보다 제품 포지셔닝과 브랜드 체력을 고려한 전략에 가깝다.

저당 제품을 통해 건강 이미지를 강화하면 브랜드 신뢰도와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고, 동일 브랜드의 다른 제품군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후광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저당 시장의 '2단계 경쟁'으로 해석한다. 1단계가 당 저감 수치 경쟁이었다면, 2단계는 대체 원료와 영양 설계 경쟁이라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당이 몇 g 줄었는지'보다 '그래서 무엇이 더 들어갔는지'를 더 따진다"며 "저당 제품이 많아진 만큼 비워낸 자리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브랜드 차별화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tree6834@metroseoul.co.kr

동서식품 '맥스웰하우스' 리뉴얼

동서식품이 '맥스웰하우스(Maxwell House)' RTD(Ready-To-Drink)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사진)하고, 브랜드 통합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새롭게 선보이는 패키지에는 리뉴얼된 브랜드 로고가 적용됐다. 맥스웰하우스의 상징인 'Good to the last drop' 슬로건과 커피잔 아이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트렌드 중심의 RTD 커피 시장에서 클래식한 이미지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를 통해 '한결같이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커피'라는 브랜드 가치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자 했다.

리뉴얼된 맥스웰하우스 RTD 제품은 3월 말부터 페트 제품을 시작으로 순차 도입되며, 캔 제품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월드푸드 말차맛 디저트 4종 출시

롯데월드푸드는 주류로 자리 잡은 말차맛 트렌드를 공략하기 위해 말차맛 디저트 4종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말차맛 정구 제품은 '▲카스타드 Cake 말차&딸기', '▲프리미엄 가나 랑드샤 말차' 2종이고, 시즌 한정판 제품은 '▲ABC초코쿠키 말차', '▲칙촉 말차' 등 2종이다

롯데월드푸드는 앞서 출시한 '빈즈 프리미엄 말차'와 지난해 말차 정구화 된 '프리미엄 몽셀 말차&딸기' 그리고 지난 1월 선보인 '드립카카오 말차' 등 여러 라인업을 통해 말차 트렌드 공략을 올해도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말차맛 디저트 7종 마케팅을 위해 오프라인 채널 등에서는 모음 기획전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하이볼로 분위기 UP"... 피크닉용 위스키 관심 집중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노마드 아웃랜드' 국내 판매량 급증
달콤한 풍미... 다양한 형태로 음용

아웃리치가 가벼워지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피크닉에 어울리는 주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익숙한 맥주나 와인 대신 색다른 선택지로 위스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분위기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수입·유통하는 웨리 피니시드 위스키 '노마드 아웃랜드'가 이러한 수요 속에서 주목받

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 제품은 제조 방식에서 차별화된다. 스코틀랜드에서 증류한 원액을 엑스 버번 캐스크에 담아 최소 6년 이상 1차 숙성한 뒤, 스페인으로 옮겨 추가 숙성을 진행한다. 이후 스페인 헤레스 지역의 '몬잘레스 비야스' 숙성 창고에서 10년 이상 솔레라 방식으로 사용된 페드로 히메네스(PX) 웨리 캐스크에 담겨 2차 숙성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바닐라, 말린 과일 향과 함께 달콤한 풍미가 형성되

며 니트로 마시거나 탄산수나 톨니워터를 더한 하이볼 형태로도 즐길 수 있다.

특히 특유의 달콤함 덕분에 니트로 마셔도 훌륭하지만, 믹솔로지 트렌드에 맞춰 탄산수나 톨니워터를 더해 하이볼로 만들면 피크닉에 어울리는 청량한 봄날 음료를 완성할 수 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웨리 피니시드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에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노마드 아웃랜드 위스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스타벅스코리아, '패스트 서브' 서비스 도입

피크시간대 빠르게 음료 제공

스타벅스 코리아가 6일부터 매장의 피크 시간대에 빠르게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패스트 서브(Fast Serve)' 서비스의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패스트 서브'는 2024년 2월 시범 도입한 '나우 브루잉(Now Brewing)'을 편의성과 사용성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는 것으로 주문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대상 음료를 사이렌 오더로 주문 시 더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년간 '나우 브루잉'의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성과와 긍정적인 고객 반응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특징이 보다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패스트 서브'로 명칭을 바꾸고, 고객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반 사이렌 오더와 동일하게 주문하더라도 대상 품목을 4개 이하로 주문하는 등 조건만 충족한다면 '패스트 서브' 주문으로 자동 전환되어, 별도의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자주 찾는 메뉴를 빠르게 주문할 수 있는 '퀵 오더'를 이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운영 매장은 전국의 약 720개 매장으로 사이렌 오더 주문 시 '패스트 서브' 운영 매장을 확인 및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장 선택 시 각 매장의 서비스 운영시간도 확인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롯데온, 15일까지 '온세상 쇼핑 페스타'

'10일간 역대급 브랜드 라인업' 슬로건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ON)은 오는 15일까지 '온세상 쇼핑 페스타(온쇼페)'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0일간의 역대급 브랜드 라인업'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행사 기간 동안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온앤더클럽 회원을 대상으로는 최대 7% 할인이 가능한 중박쿠폰도 선물한다. 결제 수단에 따라 최대 10% 할인을 더해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했다. 20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결제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매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엘포인트(L.POINT) 쇼핑지 원금도 지급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적

립 혜택이 커지는 '적립 특가'도 함께 운영한다.

브랜드 최대 혜택을 선보이는 '포커스 온 브랜드'가 운영된다. 패션·뷰티·리빙 전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브랜드가 참여해 쇼핑 선택의 폭을 넓혔다. 주요 참여 브랜드로는 라코스테, BYC, 입생로랑, 프로쉬, 지오다노, 블루독패밀리, 타미힐피겨, 제이에스티나 등이 있다.

롯데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그룹사 콘텐츠도 준비했다. 롯데월드푸드의 '가나 프리미엄샐'을 새롭게 선보인다. 계열사의 온·오프라인 혜택을 연결한 엘타운(L.TOWN)에서는 가나 프리미엄 샐을 비롯해 롯데GFR, 롯데월드, 롯데면세점, 롯데칠성 등 그룹사의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삼립 식사 대응 조리빵 선보

삼립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사 대응 조리빵 3종을 출시했다.

식사 대응 조리빵은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피자빵을 다양한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부드럽고 촉촉한 빵과 풍성한 치즈 토핑이 특징이다.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일상 간편식으로 안성맞춤이다.

신제품은 3종이다. 톡톡 터지는 옥수수와 고소한 모차렐라 치즈가 어우러져 '단짠'의 조화를 이루는 '콘치즈 피자브레드', 토마토 소스에 스토크렘을 듬뿍 올려 훈연 향을 살린 '햄치즈 피자브레드', 허니 머스타드 소스와 탱글한 소시지의 식감이 일품인 '소시지 피자브레드' 등이다.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관세영향 완전 해소... 셀트리온, 미국 생산 확대 '승부수'

바이오시밀러, 관세 적용 제외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전략 추진
브랜치버그공장 7.5만리터 증설

셀트리온이 미국 의약품 관세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중장기 성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의료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을 통해 회사 사업에 미치는 관세 영향이 사실상 해소됐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의약품 공급망의 자국내 회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정부와 약가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의약품 및 해당 원료 수입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되며 ▲국가별 차등 관세 적용에 있어서 한국은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 약가(MFN)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은 관세 면제도



셀트리온 '짐펜트라'.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서 셀트리온의 미국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시밀러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영업·마케팅 전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 셀

트리온은 향후 바이오시밀러 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브랜치버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현지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에서 신약으로 판매 중인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 치료제 '짐펜트라'도 원료의약품(DS)이 미국 뉴저지주 소

재 브랜치버그(Branchburg)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어서 관세 영향은 없을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해당 시설에 이미 짐펜트라 생산 관련 기술 이전(tech transfer)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에는 짐펜트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될 모든 제품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관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 완료해, 향후 관세율 조정 등 미국 관세 정책이 다시 변경되더라도 관련 영향권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완제의약품(DP)뿐 아니라 원료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요구하고 있어, 글로벌 제약사의 현지 생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자사의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이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에 대한 7만5000리터 추가 증설 계획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총 생산 캐파는 원료의약품 생산 기준 현재 6만

6000리터에서 14만1000리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 생산뿐 아니라 글로벌 위탁생산(CMO) 수주 역량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한 직판 경쟁력 강화도 예상하고 있다. 짐펜트라라는 올해 들어 처방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면서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현지 생산 시설을 통한 무관세로 가격 경쟁력까지 더해질 경우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물류·운송비 절감까지 감안하면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미국 의약품 관세 정책을 통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군에 대한 관세 영향이 사실상 해소된 가운데, 현지 생산을 통한 직판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사업 기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짐펜트라를 포함한 주요 제품의 처방 확대 및 CMO 사업 확대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R&D 강화 나선 SK바사, 연구 조직 재정비

마상호 부사장, 연구지원실장 영입
중장기 파이프라인 실행력 강화



높이고, 주요 프로젝트의 단계별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상호 연구지원실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C녹십자, 중외제약 등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업계에서 의약품 및 백신 제품의 비임상 및 임상 개발 과제 등을 두루 섭렵해온 전문가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약학 박사학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화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마 실장은 그간 쌓아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R&D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시에 연구지원실 산하에 연구기획팀, 바이오규제관리팀, 비임상지원(N

CS)팀, GCLP 팀 등을 편제하며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강화된 연구지원 기능을 바탕으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범용 코로나 백신, RSV 예방항체, 에볼라 백신, 차세대 독감 백신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글로벌 협력 기반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송도 글로벌 R&PD 센터로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하며, 연구개발, 공정개발, 품질 분석, 사업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진기지를 구축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후 에볼라, RSV, 차세대 독감, 범용 코로나 백신 관련 프로젝트를 국제 기구 및 기관들과 본격 착수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코자 핵심 인재 영입하고 연구지원 조직을 정비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연구본부 내 연구지원실장으로 감염병 분야의 연구사업관리 전문가인 마상호 부사장(사진)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R&D 프로젝트 관리(PM) 기능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연구기획부터 규제 대응, 비임상 및 임상검체분석(GCLP) 운영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회사는 중장기 파이프라인의 개발 속도와 완성도를



팜퍼스 '2026 여름 기저귀' 2종



/한국P&G

팜퍼스, 무더위 겨냥 썸머 기저귀 선포

에어 메쉬 소재로 통기성 높여

한국P&G는 기저귀 브랜드 팜퍼스에서 2026 여름 기저귀 '엔젤 에어차차 썸머팬티'와 '터치 오브 네이처 썸머팬티'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기저귀 내부에 열기와 습기가 쉽게 축적되는 만큼, 아기 피부를 보다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팜퍼스는 계절적 특성을 반

영해, 두 제품 걸커버와 허리 밴드에 100% 에어 메쉬 소재를 적용하는 등 통기성과 착용감을 강화했다.

'엔젤 에어차차 썸머팬티'는 기저귀 전체 걸커버와 탭시트에 3만 개의 공기 구멍을 설계해 공기 순환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저귀 내부 습기를 빠르게 배출해 장시간 착용 시에도 보송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 팜퍼스만의 냉각 기술이 더해져 쾌적함을 높인다.

/이청하 기자

"출혈 걱정 줄었다"... JW중외제약, 혈우병 치료제 효과 입증

'헐리브라' 연구 결과 발표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헐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를 투여한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에도 낮은 출혈 위험을 유지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 학술지 'TH Open'에 게재됐다고 6일 밝혔다.

'헐리브라'는 이종특이항체 치료제로 A형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기전을 갖췄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제8인자 대체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보유 환자뿐 아니라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일본 나라의과대학 소아과 게이지노

가미 교수 연구팀은 약 97주간 일본 내 50개의료기관에서 소아 및 청소년 A형 혈우병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헐리브라 예방요법을 적용하며 신체활동, 출혈, 안전성, 삶의 질 변화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전자 환자보고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활동 추적기, 설문지 등도 활용했다.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연령군에 따라 헐리브라 투약 전 최근 12주 또는 24주 내 1.5~2.0회의 출혈 이력이 있었다. 헐리브라 예방요법 전환 후에는 연간 출혈 빈도(ABR) 중간값이 0.53회로 나타났다.

연구 기간 중 고위험 활동 44건, 중위험 활동 70건, 저위험 활동 42건 등 총

172건의 신체활동이 기록됐다. 특히 축구, 유도 등 중·고위험 활동을 포함해 25가지 이상의 신체활동이 확인됐다. 신체활동과 관련된 외상성 출혈은 1건 보고됐으나 활동 강도와 출혈 간 유의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삶의 질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다. 삶의 질 설문조사 점수는 2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보호자 대상 설문에서는 14명(43.8%)이 자녀의 활동량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18명(56.3%)은 자녀의 출혈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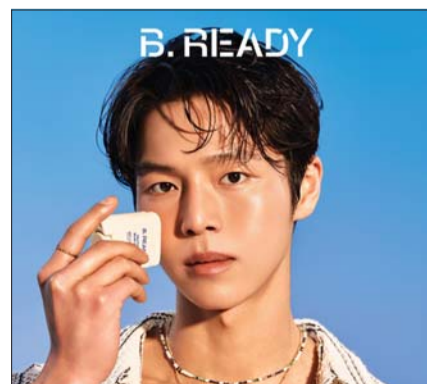
안전성 측면에서는 영유아 환자군에서 특히 우려되는 두개내 출혈(ICH)과 혈전 색전증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청하 기자

간편하게 쓱쓱... 비레디 '아웃런 선스틱'

아모레퍼시픽, 남성용 선키어 출시

아모레퍼시픽은 남성 화장품 브랜드 비레디에서 선키어부터 피부 컨디션 관리까지 한 번에 돕는 '아웃런 선스틱'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바른 듯 안 바른 듯 가볍게 밀착되는 에어터치 제형으로 설계됐다. SPF50+PA++++의 자외선 차단 지수와 함께 8시간 지속내수성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물과 땀에 강해 러닝, 골프, 물놀이 등 활동량이 많은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다공성 파우더를 처방해 운동 중에도 묻어남 부담을 줄였다.



비레디 '아웃런 선스틱' /아모레퍼시픽

또 고순도 병풀 추출물 핵심 성분인 '테카'를 함유해 건조함과 거칠어짐 등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카카오, 학생 AI 경진대회 'AI 톱 100 캠퍼스' 성료
 카카오는 6일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가 주최한 학생 대상 인공지능(AI) 경진대회 'AI 톱 100 캠퍼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4일 경기도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렸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AI 활용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했다. /카카오



SOOP, 식목일 맞아 스트리머 100명과 나무심기
 SOOP(숲)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스트리머들과 함께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내 로맨틱 가든에서 열렸다. 장지수, 양평, 이지상 등 약 100명의 스트리머가 참여해 백일홍 나무를 식재하며 도심 녹지 확대와 생태 환경 보존의 의미를 공유했다. /SOOP



iM금융그룹, 어르신·장애인 위한 정서안정 봉사활동
 iM금융그룹은 iM가족봉사단이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한 'iM가족봉사단 식목일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 동구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번 행사는 식목일의 의미를 살려 반려식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활력과 정서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iM금융그룹

**현대제철
 '한뼨 에세이 공모전'**

'모먼트'서 30일까지 진행

현대제철은 6일부터 30일까지 공식 미디어 플랫폼 '모먼트'에서 '나를 지탱해준 순간'을 주제로 한 '한뼨 에세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철이 구조물을 단단히 지탱하듯, 각자의 삶에도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해준 존재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현대제철은 보다 많은 이들이 일상 속 소중한 가치를 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참여 문턱도 낮췄다. 참가자는 자신을 지탱해준 사람, 물건, 장소 등 3개 부문에서 각각 1회씩, 500자 이내의 짧은 에세이를 제출하면 된다. /유혜은 기자

인사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후변화외교과장 김종민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경제총괄과장 정동혁

부음

▲이영원 씨 별세, 이기태(주한화 글로벌부문 상무)씨 부친상 = 4일 오후 11시 47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장지 전북 김제시 선영. (02)2227-7500

LG전자, '앰배서더 4기' 출범... 역대 최고 경쟁률 65대 1

1~3기 3800건·5500만회 성과
 영상·글·사진·카툰 창작자 선발
 제품 체험 지원·우수자 포상도



LG전자 앰배서더 4기 발대식 사진. /LG전자

LG전자는 자사 제품을 창의적인 콘텐츠로 알릴 앰배서더 4기를 발탁해 최근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4기 선발에는 3200여 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수준인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앰배서더는 LG전자의 제품과 서비스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2024년부터 1~3기 활동을 통해 콘텐츠 누적 3800여건을 만들고 조회수 5500만 회를 달성했다. 1~4기의 SNS 팔로워 수는 총 1200만 명이다.

올해는 기존에 제공해왔던 콘텐츠 제작 지원비와 함께 앰배서더들이 원하는 LG전자 최신 제품을 제공하고 직접 체험한 후기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다. 또 공식 활동이 종료되면 앰배서

더 어워드를 통해 우수 활동자들을 선정, 총 2000만원 상당의 부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앰배서더 4기에는 영상 뿐 아니라 글, 사진, 카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폭넓게 선발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팔로워 총 90만 명을 보유한 '소녀스키 부끄', 인공지능(AI) 강아지 채널 '멍터뷰', AI 고슴도치 직장인 '고또치' 등 동물 콘텐츠 창작자부터 AI 건강 채널 '안녕, 나의 건강', 인스타툰 작가 '뽕꾸', 상위 0.3% 수학영재 '쥬니러버', 뮤지컬 배우 이우리 등이 합류했다. 오성택 LG전자 한국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상무)은 "크리에이터들이 개성을 살려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1~4기 앰배서더 간의 시너지로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콘텐츠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18기 모집

포스코청암재단
 환경 분야 신설로 지원 확대

포스코청암재단은 신진 과학자 지원 프로그램인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18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환경 분야를 새로 신설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신진 교원을 선발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총 543명의 사이언스펠로우를 배출했다. 18기 모집은 수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4개 분야와 금속·신소재, 에너지소재, 환경 등 응용과학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7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신설된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대기·폐기물·수질·토양 등 환경 매체

전반과 지구환경 변화 관련 연구를 포괄한다. 지원 대상은 임용 36개월 이내 전임 교원이다. 선발된 연구자에게는 2년간 총 1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접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면심사와 추천서 평가,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발자는 10월 증서수여식 이후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포스코청암재단 관계자는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까지 폭넓은 연구 분야를 지원해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해 신설한 환경 분야를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순환, 오염 저감 등 복합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KGM, 강남 심야 로보택시 확대

서초 일부서 강남 전역으로 운행
 코란도 EV 이어 토레스 EVX 추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KGM 구역형 자율주행 로보택시 확대 토레스 EVX 추가 운영.

KG모빌리티(KGM)가 자율주행 전문기업 SWM과 손잡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행 중인 심야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KGM은 기존 운행 중인 심야로보택시 서비스 차량을 코란도 EV 모델에 이어 새롭게 토레스 EVX를 자율주행 택시로 추가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KGM과 SWM은 올 연말까지 로보택시 운행 물량을 20대 이상으로 늘려 도심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범위와 시간도 이용자 편의에 맞춰 크게 늘어난다. 운행 구간은 기존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에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강남 전역(20.4㎢)으로 확대된다. 심야귀가객의 수요를 반영해 운행 시작 시간 역시 종전보다 1시간 앞당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조정했다. 기술적 고도화도 이뤄졌다. KGM은 이번 토레스 EVX 투입 과정에서

양사 간 제어 신호를 직접 연동하는 등 핵심 제어 네트워크 설계를 고도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한층 세밀하고 안정적인 주행 제어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KGM과 SWM은 도심 주행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선행기술 협력을 맺고, 강남 일대에서 택시 운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와 달리 일정 구역 내에서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알아서 경로를 설정해 이동하는 '구역형 자율주행 택시'는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TEAM HMC' 10년 연속 후원

2026 현대 N 페스티벌 출전 지원



방송인 양상국(왼쪽부터), 현대차 국내마케팅실장 이철민 상무, 현대차 윤희준 국내사업본부장, TEAM HMC 레이싱팀 김주현 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TEAM HMC 후원 협약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가 아마추어 동호회 레이싱팀 'TEAM HMC(현대 모터 클럽)' 레이싱팀 후원을 10년 연속으로 이어가며 국내 모터스포츠 육성 및 저변 확대에 힘쓴다. 현대차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U X 스튜디오 서울에서 현대차 윤희준 국내사업본부장, TEAM HMC 레이싱팀 김주현 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TEAM HMC 후원 협약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TEAM HMC는 현대차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동호회 '현대모터클럽' 회원 중심의 순수 아마추어 레이싱팀이다. 2017년 창단 이후 KSF 아반떼컵, 현대N 페스티벌 대회에 꾸준히 참가해왔다. /양성운 기자

올해 TEAM HMC는 10년 연속 드라이버로 참가하는 방송인 양상국과 자동차 유튜버 흥시카(흥시car)를 포함한 총 5명의 드라이버로 구성됐다. 이들은 아반떼 N으로 이번 '2026년 현대 N페스티벌'에 출전한다. /양성운 기자

LIG D&A, 임베디드SW 실무인재 키운다

수료생 채용 연계 강화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방위산업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LIG D&A 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LIG D&A The SSEN 임베디드SW 스쿨'은 실습 중심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임베디드SW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현업에서 사용하는 툴을 활용해 실제 개발 환경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LIG D&A 제

직자와 인증 강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해 방위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역량과 개발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재 3기가 운영 중이며 오는 6월 수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진행된 2기 교육과정에서는 수료생 중 9명이 LIG D&A에 최종 합격해 방산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 이번 4기는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교육은 다음달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국전파진흥협회 가산 DX캠퍼스 1센터에서 진행된다. /원관희 기자 wkh@

LOTTERIA™

AI 시로 생성한 콘텐츠



SEOUL STATION
 서울역 전용
 기차 패키지
 EXCLUSIVE

기차에서 간편하게 불갈비버거

소갈비살패티로 쫄깃한 고기식감 UP!

단품 6,800원 세트 8,800원

영양성분표

세트메뉴 : 선택 디저트, 음료에 따라 영양성분 상이 알레르기 유발 안내

원산지

버거메뉴	총중량(g)	열량(kcal)	단백질(g)	나트륨(mg)	당류(g)	포화지방(g)	버거세트메뉴	열량(kcal)	불갈비버거	달걀, 밀, 대두, 우유, 쇠고기	쇠고기(호주산)
불갈비버거	182	467	19(35%)	870(44%)	13	10.0(67%)	불갈비버거 세트	579 kcal ~ 1,264 kcal			

메뉴 구성에 따라 알레르기 성분이 다르므로, 각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을 확인 바랍니다. 각 제품은 원재료의 수급 상황에 따라 구성 성분 및 원산지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영양성분은 1회 제공량 기준이며, 당사 표준 레시피에 따른 제품의 영양성분으로 실제 제공된 제품의 영양성분과 중량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영양표는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영양 정보를 포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영양성분은 실험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경, 선의의 역설마저 안보인다



기고

오영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정책비서관

고대 로마의 최고 권력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사회의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권력 강화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공화주의 전통을 위협하고 사실상의 독재를 추진한다고 생각한 원로원 의원들은 심하게 반발하며 카이사르에 대항했다. 이후 로마는 내전에 빠졌고, 이는 결국 공화정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부터 유래된 개념이 바로 '선의의 역설'이다.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도,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善意)였을 수 있다는 것. 현대 정치에서는 과도하게 이상만 좇는 행태를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곤 한다.

우리는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는 사례를 끊임 없이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선한 의도'마저 안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박홍근 장관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책의 타이밍과 구성, 그리고 재정 규모를 종합해 보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속도전에 나선 것은 정책적 필요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지금 복합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임기 초부터 추진된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확장재정 기조가 물가를 자극했고, 민생경제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서민과 청년의 신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유가 폭등, 집값 폭등, 쌀값 폭등까지. 5대 폭등 속에서도 정부는 포퓰리즘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이 또 26조 원 추경이라니,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세부 항목을 들여다 보면 더 가관이다. 영화, 공연, 숙박 할인같은 선심성 예산부터 놓여준 기본소득 예산 706억 원까지. 이게 과연 전쟁용 추경인지, 지선용 추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확장 재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책을 추진하는 명분과 의도는 분명했다. 경제를 살리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 자체는 인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과가 실패로 이어졌을 때도 '선의의 역설'이라는 평가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대놓고 정치적 목적의 '현금 살포'라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각 3.0%, 3.6%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부채만 압도적으로 높은 9.8% 늘어난 것이다. 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 비용은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확장 재정이 반복될 경우,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된다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빚더미 국가가 되고 만다. 국민들의 머리 속에 "어쩌면 정부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전에 국가 재정을 불모로 한 때표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정책비서관

울산 석유화학 재편, 왜 제자리걸음만 하나



기자 수첩

원관희
(산업부)

울산 석유화학단지 재편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급 과잉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작 부담은 누가 질 것인지를 두고 업체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논란의 중심에는 에스오일의 사한 프로젝트가 있다. 에스오일은 올해 말 가동을 앞둔 사한 프로젝트를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유와 부산물을 곧바로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TC2C 공정을 갖춘 신규 고효율 설비인 만큼 기존 NCC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신

규 설비라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는 배경이다.

에스오일은 이번 재편 논의의 목적이 단순 감축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경쟁력이 낮은 노후 설비를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의 시선은 다르다.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생산능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만 신규 설비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에서 비켜서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사한 프로젝트는 아직 가동도 하지 않은 설비다. 기존 공정보다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설비 업체들은 자신들만 먼저 생산능력을 줄이는 방식

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에스오일 역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스스로 접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없다. 결국 울산 논의는 기술이나 효율성 논쟁을 넘어 구조조정에 모두가 어느 정도의 책임과 부담을 나눠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중동발 원유·나프타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업계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울산단지의 구조조정이 빨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금 막혀 있는 것은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누구는 아프게 버티고 누구는 비켜서는 것이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울산단지의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선 업체 간 신뢰 회복이 먼저다. 무임승차 한다는 인식을 주기보다는 같이 구조 조정에 참여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wk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7일 (음 2월 20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지금은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60년생 전업이나 개업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72년생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84년생 먼저 정한 바를 관찰하세요.



49년생 조금만 더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61년생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3년생 심신이 고달픈 날입니다. 85년생 금전운은 길하나 지출이 있게 됩니다.



50년생 의존심은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2년생 누명이나 사기를 조심하도록 하세요. 74년생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6년생 긴 안목을 가지도록 하세요.



51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63년생 현실적인 소망부터 하나씩 이루도록 하세요. 75년생 작은 상처라도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87년생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세요.



52년생 다 끝난 일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64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76년생 마음이 잘 맞는 주위 사람과 상의하세요. 88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53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세요. 65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세요. 77년생 주위의 유혹이 많은 날입니다. 89년생 과욕은 금물임을 기억하세요.



54년생 심기가 편치 못한 날입니다. 66년생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하세요. 78년생 돈이 막히는 날이니 잘 살펴주세요. 90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보세요.



55년생 냉철한 이성으로 오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7년생 중요한 협상은 내일로 미루세요. 79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91년생 자기 발전을 위해 매진하세요.



56년생 큰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68년생 강직하게 밀고 나가도록 하세요. 80년생 노력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실이 맺어집니다. 92년생 재정적으로 유쾌하게 될 것입니다.



57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69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81년생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93년생 분주하고 소독이 없습니다.



58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되니 노력의 값진 대가입니다. 70년생 마음을 비우고 여유를 가지도록 하세요. 82년생 반가운 벗이 찾아오게 됩니다. 94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59년생 큰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71년생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83년생 사랑과 우정 사이, 가족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95년생 원하는 것 중 작은 것은 이루어집니다.



김상회의四季

역강부약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미래가 막막할 때 사주팔자를 찾곤 한다. 그러다 자기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탄하는데 사주에 살이 있다거나 재물운이 약하다는 식의 풀이를 듣고는 낙담하는 것이다.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 명리학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저 기뻐할 사주도 낙담할 사주도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서로 타고난 기운이 다를 뿐이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르듯 사주의 기운도 서로 다르다. 사주팔자는 여덟 글자로 이루어진 에너지의 배치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명이란 모든 것이 결정된 결말이 아니라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어떤 기운이 넘치고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균형의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사주가 결함 있는 사주라는 점이다.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와 취약한 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걸 보여줄 뿐이다. 명리학의 핵심은 역강부약이다.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조화가 있다. 사주에 불이 너무 많다면 차분한 물의 기운을 가진 취미를 갖거나 냉철한 조언자를 곁에 두어 열기를 식히면 된다. 반대로 기운이 너무 약하다면 꾸준한 공부나 운동으로 내면의 근육을 길러서 보완하면 된다. 날카로운 칼의 기운을 연마해 수술칼로 쓰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의 칼로 쓰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운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주되는 멜로디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팔자가 사납다는 말로 운명의 흐름을 안 좋은 쪽으로 스스로 끌고 갈 이유가 없다. 나에게 좋은 기운을 잘 활용하면 어떤 사주가 됐든 인생을 잘 풀리는 쪽으로 끌어갈 수 있다. 역강부약 넘치는 것을 덜어내고 부족한 것을 채우면 조화를 이루기 마련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2	4		8			
	8	4	6	1		9		
2						5	9	
		8				7		
3	9							6
		2		6	7	3	1	
		3						8
6		3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레코드를 도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2	9	6	8	1	9	8
8	6	9	7	1	8	2	9
9	1	8	2	9	8	7	6
9	7	8	1	2	6	9	8
1	2	6	8	9	8	7	9
6	8	9	9	8	7	2	1
2	9	6	1	9	7	8	2
8	9	7	8	2	6	9	2
2	8	1	7	9	2	9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26 2002년5월28일 제58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99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폐교까지 법으로 관리... 교육부,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강화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 잔여재산 귀속·청산인 선임 등 적용 대학 구성원 보호 규정도 포함

교육부가 재정진단부터 폐교·청산까지 사립대 구조조정 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에 나섰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를 열며 학생·교직원 보호와 비리 차단 장치도 함께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 시행(2026년 8월 15일)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은 오는 8월 15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한시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진단부터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재정난을 겪다가 결국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전경.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메트로신문 DB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함께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담고, 폐교·해산되는 학교와 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잔여재산 귀속과 청산인 선임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상위법인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에는 사립대학교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재정진

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 구조개선 명령,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전담기관 지정, 잔여재산 귀속 특례, 폐교 구성원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사립대학교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은 국회 추천으로 채워진다.

시행령안은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학생과 교직원, 연구자 등 대학 구성원 보호 규정도 포함됐다. 폐교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폐교된 대학 소속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활동 보호 조치도 마련한다.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관된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횡령과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제한 규정도 뒀다. 해당 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 출연을 제한한다. 재산 출연 이후라도 같은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립대학교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첨단 마이스터고 매년 1곳씩 늘린다

서울시교육청, 직업교육 4개년 계획 AX 특성화고 2029년까지 20교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첨단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를 매년 1개교씩 확대하는 내용을 축으로 한 직업교육 4개년 계획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계고 학생 비중 축소 속에서도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춘 고숙련 기술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 직업교육 종합계획(2026~2029)'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함께 만드는 직업교육', '성장하는 학생', '미래를 여는 기술'을 비전으로 ▲학생 성장 중심 맞춤형 직업교육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K-직업교육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의 표준, 질 높은 서울직업교육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기술교육 ▲학생 보호 중심의 안전한 직업교육 등 5개 중점 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첨단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확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3월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인 서울반도체고 개교를 시작으로 첨단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를 매년 1교씩 확대해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고숙련 기술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과학기술대와 협력한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대학 연계를 바탕으로 '첨단공동교육연구센터'를 2030년 상반기 건립 목표로 추진하고, 피지컬 AI와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진의 설계 역량과 학생들의 유지보수 실무교육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Lab to Class' 모델도 도입한다.

교육과정 개편도 본격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접목되는 흐름에 맞춰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재편하고,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실무 생산성을 높이는 'AX 중점 특성화고'를 올해 5개교에서 시작해 2029년까지 20개교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대학 강의를 무료로... '구독대학' 확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배 늘려

서울권 대학의 전공 강의를 시민이 무료로 듣는 서울형 대학 연계 평생교육이 올해 참여 대학과 강좌를 대폭 늘리며 본격 확대된다. 직업역량 중심의 대학 연계 교육 체계에 더해 인문·교양 분야 시민 선택권을 넓힌 '구독대학'이 10개 대학에서 30개 강좌 규모로 마련된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이 원하는 대학의 강좌를 골라 수강할 수 있는 '구독대학'의 올해 참여 대학 10개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수강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구독대학은 총 30개 강좌, 약 8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15개 강좌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로 확대됐다. 현재는 1차로 4~5월

개강 강좌 8개를 대상으로 약 21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후 강좌도 순차적으로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구독대학은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대학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민이 원하는 대학과 강좌를 '구독'하듯 선택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 연계 평생교육을 직업역량 중심의 '서울마이크로디그리'와 인문·교양 중심의 '구독대학'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구독대학은 서울권 대학의 전공 기반 학문 강좌를 시민이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명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10개교다. /이현진 기자

인천관광공사, 웰니스관광지 7곳 선정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으로 도약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역 특화 웰니스 자원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치유와 회복을 제공할 '2026년 인천 웰니스관광지' 7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인천 웰니스관광지는 총 35개소로 확대되며, 인천 전역을 아우르는 치유관광 클러스터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2026년 4월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공모는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인천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기존 및 신규 관광지를 연계해 강화·영종·송도·도심 등 4대 권역을 잇는 '인천형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방문형 관광

을 넘어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선정된 웰니스관광지는 총 6개 테마로 구성됐다.

스테이 분야에서는 강화바다와 돌담 풍경 속에서 특산물 차와 함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스토나리 호텔앤리조트'가 이름을 올렸다.

웰빙푸드 분야에는 마니산 천연 효모로 빛은 증류주 페어링을 체험할 수 있는 '류 양조장'과 강화 순무를 활용한 쿠키 클래스가 가능한 '핑크김치'가 선정됐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오늘의 날씨

4월 7일 (화)

음력 : 2월 20일

수도권 날씨

3 ~ 1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09 | 해질 / 19:00

백령도 5/8

파주 0/14

인천 4/12

수원 3/13

평택 1/12

연천 0/13

동두천 1/13

가평 0/13

서울 3/13

양평 1/14

용인 3/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아프리카연합(AU), "중동전쟁이 아프리카 경제의 최대 위협"
▲이스라엘·걸프 방공망 선방했지만... "요격 미사일 부족" /사진 뉴시스

▲中청명절 8억4000만명 이동 전망...귀경길 혼잡 정점
▲백악관에 남은 미일 정상회담 대만 문구... "미일 사전 협의 반영"

▲中·파키스탄, 연합 해상훈련...중동 중재 속 군사협력도 병행
▲日다카이치 "이란 정상회담 적절한 시점에 추진"...美와 통화에도 의욕



성숙단계 접어든
저당 트렌드
대체 설계로 확장
L1



Life

관세영향 해소
셀트리온
미국생산 확대
L2



전기료가 빛나는 '녹색철강'... 저탄소·안전관리로 미래 제련하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동국제강

동국제강이 전기로 기반 친환경 생산체계 고도화를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저탄소 공정과 자원순환, 안전관리, 조직 안정 기반까지 함께 다지며 ESG를 경영 전반으로 확장하는 모습이다.

◆공정 효율·자원순환으로 친환경 철강 체제 고도화

동국제강은 중장기 친환경 전략인 '스틸 포 그린(Steel for Green)'에 따라 전기로 기반 저탄소 생산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 '에코아크 전기로'를 인천공장에서 운영 중이며, 철 스크랩 사전 예열과 연속 장입 방식을 통해 일반 전기로 대비 전력 사용량을 30% 절감했다. 차세대 하이퍼 전기로 공정 연구도 병행하고 있으며, 연구 완료 목표 시점은 오는 2028년이다. 스크랩 예열·장입 방식 개선을 통해 기존 설비 대비 전력·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폐열 발전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생산체계 구축 성과는 제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기로 기반 공정의 환경영향이 제품 전 과정으로 평가되며 국제·국내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확보로 이어졌다.

철스크랩 거래 및 회수 체계도 개선됐다. 지난 2024년 철스크랩 온라인 구매 플랫폼 '스크랩샵'을 도입해 지정 협력업체 중심의



동국제강 전기로.

기존 거래 구조를 개방형으로 전환했다. 생산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을 직접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순환자원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기로 기반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전력 사용 30%↓... 에너지효율 제고 철스크랩 플랫폼 도입, 순환자원 확대

◆안전체계 정비·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병행
생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와 협력사 안전보건 역량 강화가 병행되고 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DK 안전환경 전문화 교육'을 신설해 ISO 통합관리와 안전보건·환경관리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했고, 상생협력 안전보건 협의체를 통해 관계사와 주요 수급사를 대상으로 가이드 제공



최상영 동국제강 사장(앞줄 가운데 오른쪽)과 박상규 노조위원장(앞줄 가운데 왼쪽)이 지난 인천공장에서 열린 '2026년 단체교섭 조인식'을 마친 뒤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동국제강

과 우수사례 공유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 전산시스템 'D-SaFe'를 기반으로 주요 공정 위험요소를 실시간 관리하고, 설비 점검 자동화와 위험요소 표준화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설비 자동화(SF 1.0)에서 공정 지능화(SF 2.0)를 거쳐 공정 통합 최적화 단계(SF 3.0)로 고도화가 진행 중이며, 향후 인더스트리 4.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공장에는 로봇 기반 제품 샘플링 시스템이 적용됐고, 철근 열처리 공정에는 물성 제어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됐다. 포항공장에서는 물류 AI를 활용한 상자 계획 수립과 작업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다.

◆조직 안정·거버넌스·사회공헌으로 ESG 확장

조직과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ESG 운영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다. 동국제강은 이사회 중심 ESG위원회를 운영하며,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6차례 회의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선배당역 결정 후 투자정책과 중간배당, 윤리서약 및 공급사 윤리약관 100% 체결 등 이해관계자 관리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주요 철강사 가운데 가장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했다. 1994년 '항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안전교육 신설 전산시스템 기반 주요공정 위험 관리

32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기록 입학돌봄휴가 등 가족친화기업 인증 경찰청·소방관 지원 등 나눔활동도

적 무과업' 선언 이후 32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도 이어졌다.

동국제강은 지난 1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일의 휴가와 기념 선물을 제공하는 입학돌봄휴가, 보직 3년차 팀장의 재충전을 위한 5일 휴가와 휴가비를 제공하는 리프레시 제도, 집중휴가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사회공헌 역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찰청 장학금 지원, 소방가족 지원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다양화했으며, 'DK Walk More', '아름다운하루',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참여형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철강업 전환의 시대에서 ESG를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며 "전기로 기반 친환경 생산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metroseoul.co.kr



지난 2024년 동국제강 스크랩 전자상거래 플랫폼 '스크랩샵'(scrapshop)이 인천공장과 포항공장에 초도납품을 완료했다.



동국제강이 주요 수급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메트로 한줄뉴스



▲송성문, 3경기 만에 무안타 '침묵'...트리플A 타율 0.281
▲'시작 7초 만에 골' 오세훈, 日 J1리그 최단 시간 득점 /사진 뉴스스

▲손흥민, '생애 첫 4도움' 기록했지만 골 침묵은 여전한 과제
▲국민은행 박지수, 2025~2026시즌 여자농구 정규리그 MVP

▲두산, 플렉센 대체 투수로 KT 출신 벤자민 영입...6주 계약
▲대한항공-현대캐피탈 챔피언십 승부 가른 비디오 판독...배구연맹 "정독 판정"